



- 1971년 김제 용지중학교 졸업. 태창 메리야스 입사
- 1979년 가톨릭 노동청년회 활동
- 1981년 태창 메리야스 노조위원장으로 당선, 민주노조 활동을 전개
- 1982년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간부 7명과 함께 해고를 당함
- 1983년 해고 후 이리 광전자에 입사 했으나 또 해고를 당함
- 1985년 군산 경성고무 입사, 해고
- 1987년 전주 노동자의 집에서 사목 활동을 시작
- 1990년 전북노련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 1991년 6월 위암수술 받고 8개월간 투병생활
- 1992년 3월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71년 김제 용지중학교를 졸업하고 태창 메리야스에 입사한 박복실 동지는 가톨릭 노동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억압된 노동자의 삶을 바꾸려 노력하였다. 81년에는 태창 메리야스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전북지역 최초의 민주노조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 전두환 정권의 노조탄압이 포악해지면서 갖은 수모와 탄압을 받다가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간부 7명과 함께 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맞서 노조탄압 중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동료들과 함께 9일간의 단식농성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복실 동지는 해고 후 83년 이리 광전자에 입사했으나, 또다시 해고를 당하였다. 그 당시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어디를 가도 취직이 되지 않았다. 동지는 아세아스와니에 다니던 김덕순 동지와 함께

블랙리스트 철폐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취직이 되지않아 동지는 전주 원일택시 운수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그만두고 지역을 옮기게 되었다.

85년 군산 경성고무에 입사되었으나, 다시 해고가 되었고 87년 전주 노동자의 집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여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시 전주지역 민주노조 건설을 헌신적으로 지원하였다.

동지는 90년 전북노련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나, 91년 6월 위암수술을 받게 되었고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3월 노동자의 새세상을 위해 온몸을 바쳐 살아온 생을 마감하였다.



- 1938년 경기도 안성 출생
- 1973년 고려대 영문과 졸업
- 1990년 전교조 경북지부 인천지부로 부터 참교육상 수상
- 1990년 9월 지병인 간암으로 운명
- 1992년 4월 18일 안성군 양성면 덕봉리에 참교육비 세워짐

◎ 동지의 삶과 죽음

오원석 동지는 지병인 간암으로 8년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교육민주화 활동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경기인천교사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50년을 바라보는 반백의 나이에 뒤늦게 교육민주화운동에 투신. 90년 9월 53세의 현직 조합원으로 영면하기까지 동지는 오직 참교육의 나무를 일구는 것이 꿈이었다. 대학 3학년 때 등록금을 마련못해 군에 있을때도 교사의 꿈은 결코 버릴수 없어

예편을 서두르고 서른 여섯의 늦은 나이에 대학에 졸업. 결국 교단에 섰다. 참교육비 제막식에서 동료교사는 추모시를 통해 "책상머리에 붙어있는 밤물을 뜯어 먹으며 숨조이고, 복종하고, 양심을 파는 동료들을 위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직선의 말이 살아 숨쉬고, 진실이 즐거이 깔린 세상이 올때까지 마음 비우고 나를 바쳐 섬기라' 하시던" 이라며 그의 정신을 기렸다.



- 1955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
- 1986년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1986년 부산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 1988년 부산 평교사협의회 참가로 교육운동 시작
- 1990년 전교조 부산지부 사립지회 동래 지구장
- 1991년 대동고등학교 전출
- 1991년 전교조 대의원 사립지회 서구지구 대의원
- 1992년 12월 13일 지병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최성근 동지는 남달리 학생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교육자였다. 교육운동가로서 그의 활동은 87년 6월 민주화투쟁에서 역동적인 민중의 힘을 직접 체험한 뒤 91년 전교조 대의원으로까지 실 새 없이 이어졌다.

87년 사회민주화 투쟁의 열기는 교육운동에도 몰아쳐 교육약법철폐, 교원노동기본권쟁취, 평교사협의회운동 등으로 이어졌고 전교조의 기치아래 불법단체의 오명과 대량 해직의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참교육을 향한 걸음을 계속하여 왔다.

89년 이른바 '교육대학살의 해'에는 전교조 탈퇴각서의 파문과 함께 출근하는 전교조 가입 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무자비하게 연행해가는 등 교육운동의 탄압이 악랄하게 자행되었다. 냉혹한 탄압의 현실은 그에게 전교조 탈퇴각서라는 형식적인 항복을 요구하였고 이 속에서 교육운동가이자 교육자로서 많은 번민을 하였다. 이후 그는 탈퇴각서의 아픔을 딛고 많은 해직교사의 참교육의 염원을 가슴에 품은 채 계성여상에서 인사위 투쟁, 예결산 요구투쟁, 서명 투쟁을 통해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91년 그는 평소 그의 활동을 달가워 하지 않던 학교재단의 부당한 인사행정으로 인해 대동고등학교로 전출해야 했다. 대동고에서 그는 학교와 사회활동에 보다 정열적으로 힘을 쏟으며 학생안전공제회, 보충수업비, 5월 서명투쟁을 주도하고 서부지부에서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쉽게 낙담하지 않았으며 '부딪혀보자, 길은 정

해졌다'며 동지들에게 힘을 주며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몰고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 섬 없던 교육민주화의 삶에 병마(간암)가 찾아왔고 많은 동지들의 안타까움을 뒤로 한채 92년 12월 13일 숨을 거두었다.

◎ 유고글

【일기1】

6월 24일 (수) 맑음
 비가 올 듯한 분위기인데도 그냥 그대로다.
 오늘의 행사를 알고 있기에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출장 허락을 받은 다음 확인하니 그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미 몇몇(서울 등) 지역에서는 전 교사를 상대로 서명에 대하여, 상부지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o, x표를 적어 내어 명단을 파악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대응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안달하면서 상식 이외의 대응방법을 펴는 이유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 아님 단순한 업무용, 아님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생각, 그것도 아니면 교육부보다 더 높은 곳의 결정에 대한지시 표시.
 왜들이러나, 교사 대우를 좋게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더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올 것이고 그 우수한 교사에게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은 더 우수할 것이고, 그러면 우수한 학생을 싫어한다면 이 나라의 기둥이 바르게 성장하

는 것을 거부하는 셈이다. 그럼 이나라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보다 잠깐의 자기 안일을 위하여 일을 한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제사. 즐거운 일일진데 별로 즐겁지 못했다.

【일기2】

5월 15일(금) 맑음. 스승의 날(?)

부끄러운 날. 하지만 작년보다는 그 부끄럼이 덜한 날이었다. 왜냐고? 수업이 없었거든. 그리고 바깥 행사도 없었고, 수업시간에 부르는 아이들 노래는 왜 그렇게 그 자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지금도 낮이 간지럽다. 조출한 체육대회 마치고는 나도 사랑하는 몇몇 제자들로부터 꽃 선물을 받았지만. 해직생들한테 가서 한잔 걸치고 늦게 들어왔다.

내년엔 좀더 멋있고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

【일기3】

5월 18일(월) 맑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써 11년째구나. 세월은 빨리도 흘러가는데 그렇게 많은 피를 마신 미늦와 자유는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더 많은 피를 원하는지.

민주주의를 위하여 죽어간 그들을 위해서도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빨리 와야겠지.

아파서 일찍 귀가. 밤새 열에 시달림.

【일기4】

4월 16일(목) 맑음

피곤하여 학교에서 계속 잠만 자다가 집에 온 것 같다. 주례 알로에(형님 친구) 가게에 갔다 알로에 하난 구입하고 집에 왔다가 산에 물 떠옴.
 책(재미있는 질병과 인간의 역사)을 주문하였으나, 내일 가지러 가야겠다.

【일기5】

4월 19일(일) 맑음 -약 구입 60,000-

이놈의 날씨는 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이들 북적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아이들과 노닥거리다 '우리교육' 축구팀에 갔다.

잠깐 걸어도났는데 피곤하다.

요즈음은 너무...

안두회가 입을 열었고 백범 암살의 배후에는

친일파가 있다.

나쁜놈들. 나는 이 나라에 부각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자고.

◎ 추모글

【동료의 글】

이웃사랑 실천한 참교사

김영섭 (계성여고 교사)

엷은 회색빛 구름이 하늘의 파아란 빛을 흐트러 놓았다. 내가 늘 등교하며 바라보던 먼 산이 저기 어디쯤이었는데 안개인가? 산 앞으로 버려진 스모그인가?

정돈되지 아니한 나의 일그러진 개념들의 파편들인가?

오늘의 이 비내림이 그치고 맑은 하늘 아래서 내 시야를 멀리 던져 볼 수 있는 이마살의 한숨 속에는 기억에서 잊혀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1989년 3월 내가 사회 직장에 사표를 쓰고 교사의 직분으로 부산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에 첫 부임을 하여 망설임이 많았던 시절 -동료라고 칭하기가 웬지 어색한 교무실의 분위기,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위선이 드러나는 가면, 나의 우유부단한 성격, 그리고 지금에선 잘 기억되지 않는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던...등- 에 한 젊은 선배교사가 이야기를 자주 붙여왔다.

그러면서 나의 밀실을 기척도 없이 자꾸만 열려고 하였고, 나는 더욱 더 자기 보호본능을 발동시켰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웅졸했고 비겁했던 것 같

다. -그는 나와는 다른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방면(영화, 교양, 도서등)에 있어 식견이 넓었고, 호칭을 부르기보다는 친숙한 어계점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표용력을 가진 키 크고 잘 생김 때문이 아닐까?- 상대적으로 빈곤에 쩌들린 난 자신의 자격지심이었다고 생각하니 그 선배가 떠나간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내가 더욱 부끄럽기만 하다.

한편으로 그는 똑바른 사람이었다. 교장선생님이나 이상을 달리하는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꾸를 했으며, 논리를 알세웠다. 그러다 험어 직분의 힘으로 논리가 무시되어 버리면 울분을 참지 못하여, 혼자 있을만한 공간을 찾아 의견을 같이하는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후의 계획을 세우곤 했다.

그럴때면 나는 "어떻게 저런 무례한 언행을 할까?" 하면서 내심으로 최선생을 가볍게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열악한 교육환경은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라는 말에 그 당시에는 내가 뭐라고 대꾸도 했지만, 지금은 '아! 이런 모습을 남기게 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은 내가 선배인 최성근 선생을 '형님'이라고 부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90년 2월의 일이다. 교사생활 1년을 마감하는 졸업식 날이었다. 난 정말 울적하고 섭섭했다.

정말 당시의 학생들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인지, 나의 교사 1년이 허망했기 때문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 혼자서 귀가하여 아내랑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잠자리에 누웠다.

12시가 조금 넘었을 시간이다. 갑자기 단칸방 유리창이 누구에게나 조용하지만 아주 아프게 두들겨 맞으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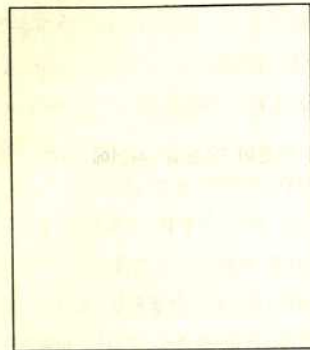
조심스럽게 아내가 누구냐고 했고 난 옷을 입으려 하고 있었다. 급히 돌아서는 아내의 입에서 "최선생님이예요."하는 것이다. 나의 옷차림. 계면책은 얼굴을 보면서 "내 이렇게 있을 줄 알았지. 섭섭하지. 한잔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손에는 양주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어때? 내가 첫 부임하던 해 졸업식에서도 네가 느낀 감정과 같았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인사법을 또 한 번 내게 보여 주는 것이다. 가슴 깊은 나의 밀실을 부수어 버리는 힘찬 손길이 나의 어깨에 유감없이 내려 꽂히는 것이었다. 참으로 그 형님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나라의 교사였다.

이 광 웅 (당시 52세)



- 1940년 전북 이리 출생
- 원광대학교 국문과 졸업
- 1974년 <현대문학>추천으로 등단
- 1982년 군산제일고 국어교사로 재직중 이른바 '오송회' 사건에 연루, 5년동안 옥중생활
- 1985년 첫시집 <대발> 출간
- 1987년 군산 서흥중에 복직
-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
- 1992년 초대 교육문제창작회장 역임
- 1992년 12월 22일오후 4시 45분 지병인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운명



1964년 11월 26일 출생
 1983년 2월 10일 진주상고 졸업
 1988년 1월 25일 삼미특수강 입사
 1990년 노조 4대 대의원 활동
 1991년 8월 4대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부장
 1992년 암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노조 사수에 힘써
 1993년 1월 25일 병상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정운갑 동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던 중 암선고를 받고도 자신보다 노동조합을 위해 헌신하다 지병으로 운명하였다.

88년 삼미특수강에 입사하여, 90년 4대 대의원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으며, 4대 집행부의 총무부장을 역임 시,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사측으로 탄압을 받을 때, 91년 비상대책위의 총무부장을 역임하며, 온몸으로 투쟁하여 노동조합을 사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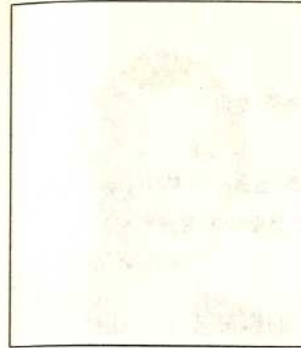
당시 이미 임파선 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로 혼자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면서도 감옥에 간 동지들을 먼저 걱정했던 동지이다.

92년 임금동결 거부, 인원감축 반대 파업 투쟁시 암말기 진단을 받고도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이 투쟁하다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추모비 비문】

님이시여!
 적현벌 하늘에 올린 그날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생사의 순간에도 민주의 화신으로 의연했던
 님의 모습은 생명이요, 불꽃이요, 삶의 지표입니다.
 자본과 독재의 불의와 부정에 타협없이
 뜨거운 삶을 살아오신 님의 발자욱을
 우리의 심장과 뇌리마다 아로새겨 두렵니다.
 이제,
 님의 넓은 민주의 불꽃으로 다시 살어나
 우리 가슴속에 영원하리!
 동지여!
 고이 잠드소서.



1963년 2월 19일 충북 진천 출생
 1989년~90년 인천 남일금속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1991년~92년 노조 교육부장으로 활동
 1992년 12월 - 93년 2월 20일 남일금속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1993년 2월 20일 새벽 6시경 과로가 겹쳐 뇌경색증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채희돈 동지는 일찍이 헌신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변혁은 물론 주변 동료들에게 노동자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진짜 노동자이다.

동지는 부도라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여 회사 정상화와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기꺼이 비대위 위원으로 나서는 헌신성을 발휘했다. 비록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채희돈 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정열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규칙적인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낮에는 비대위 활동은 물론 실의와 절망에 빠진 주위 동료들을 격려하고, 밤에는 주변 동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오는 겨울 추위와 싸우며 현장규찰임무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당연히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기도 힘들었지만 짜증은 커녕, 오히려 주위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진짜 노동자의 표상이었다. 2월 20일 힘겨운 주간 활동을 마치고 야간 비대위 회의 도중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은채 쓰러졌다. 이것이 동지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동지는 하루를 넘기지 못한 채 -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의 기능이 30% 이상이 정지되고 있었으며 뇌의 기능 정지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음 - 한많은 노동자의 설움을 딛고 일어서고자 했던 찬란한 노동해방의 꿈을 살아있는 동료들의 과제로 남긴채 끝내 자택에서 운명하였다. (사인은 고인이 일반인보다 선천적으로 약한 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와 피곤이 겹쳐 발생한 뇌경색증) 부인과 두 아들, 동료들의 오열 속에 시신은 화장되어 인천 앞바다에 뿌려졌다.

정 영 상 (당시 37세)



1956년 2월 12일 경북 영일 출생
 1972년-1976년 영일중, 포항고 졸업
 1983년 광주사대 미술교육과 졸업, 안동중 부임
 1987년 안동교사협의회 부회장 역임
 1989년 8월 안동 복수여중에서 해임, 전교조 안동지회 부지회장
 1990년 이후 안동지회에서 단양지회로 진출하여 활동
 1993년 4월 14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공주사대를 졸업하고 안동중학교로 부임한 동지는 86년 경북 안동시 복수여중으로 전보 발령,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87년 전교련 안동교사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게 된 동지는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으로 복수여중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전교조안동지회 부회장을 역임한 정 동지는 시집을 발간하는 등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93년 4월 14일 단양중, 매포중, 단양국민학교 현장 방문을 하고 단양지회모임 후, 늦게 귀가하여 자던 중 1993년 4월 14일 새벽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 달려와 통곡하던 어느 해적 선생님의 말처럼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살아남은 자의 고통으로 나는 괴로워 한다. 이른 봄 3월에 소백산 등반을 다녀온 후 그가 쓴 '먹내 채 가지지 않은 글씨' '기다림 없이 풀 한포기인들 제대로 키울 수 있으랴'(신영복 선생님글)를 보고 그의 끝나지 않았던 기다림에 나는 가슴 아파한다. 함께 울고 웃으며 사는 동안은 결코 힘겹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희미하게 빛조차 바래 버린 우리 삶의 짐을 혼자 지고 가버렸기에 나는 홀로 남아 그 무게를 애써 기록해 본다. 다시는 옛날처럼 한밤 또는 이른 새벽, 바람처럼 찾아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그리운 사람이기에 나는 그의 시 한편을 떠올리며 그의 죽음이 내 가슴에 거름되어 살아오도록 간절히 소망한다.

(박 동지의 부인 박원경 선생님의 추모글 중에서)

◎ 유고글

【동지의 시】

절규 · 3

-나는 계란이다.

나는 계란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나만 박살난다는
 바로 그 생계란이다/그러나 사람들아
 부끄러워하라/내 앞에서
 부끄러워하라/너희는 누구 어디
 나처럼/온몸으로 박살나도록
 으깨져 본 적이 있는가/바위 같은 큰 적앞에
 온몸으로 피투성이로 /내장까지 흘러 내리며
 싸워 본 적이 있는가/이 미쳐버린 나라에
 이 똥물보다 더 더러운 정권에 대항하며
 나처럼 온몸으로 박살날 자신이 있는가
 전태일 동지 앞에
 박종철 동지 앞에/늘 고개를 숙여
 산더미 같은 빛을 갈아야하는
 나는 계란이다
 저 파렴치한 적
 흉악무도한 적들에게
 언제라도 던져질 각오가 되어 있는
 장렬하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는 계란이다.

정 영 부 (당시 49세)



1945년 5월 18일 마산 출생
 경남공고, 동아대공대 졸업
 경남공고, 진주대동기계공고 근무
 경남 수필문학회 부회장 역임
 1989년 진주 대동기계공고 해직
 전교조 초대 진주지회장, 서부경남국민연합준비위원장 역임
 진주신문 창간논설위원
 1990년 제1회 전교조 참교사상 수상
 1993년 5월 13일 지병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선생님은 1945년 5월 18일 경남 마산시 합성동에서 아버지 정갑성씨와 어머니 안갑주 여사의 사이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셨다.

당시 합성동은 여느 시골이나 마찬가지로 합성초등학교에 다니시며 소먹이고 풀베며 자라 마산중등학교를 거쳐 부산공고등학교 전기과를 마치고 동아대학 전기과에 입학하시어 ROTC로 군에 입대하여 육군 중위로 제대하였다.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를 거쳐 진주직업훈련원에 잠시 근무하다가 진주대동기계공업고등학교에 10년 남짓 근무하고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 당할 때까지 기술 인력양성에 혼신의 정열을 쏟았다.

선생님은 경남 수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시며 경남수필문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수필집 '슬픔이 피어나는 언어의 배경'을 내놓은 바 있다.

87년 교사협의회부터 교육운동을 시작해 89년 전교조 진주지회 초대지회장, 서부경남연합준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부도덕한 권력의 탄압에 온몸으로 맞서던 중 선생님은 결정적으로 건강을 잃게되었다. 이런 중에도 선생님은 지역의 뜻있는 분들과 건전한 지역신문의 필요를 느껴 '진주신문'의 창간준비위원, 편집위원, 논설위원으로 일하셨고 운명하실 때까지 감사로 계셨다.

뜨거운 엔진처럼 고난을 뚫고 살아온 고인은 1990년 전교조에서 주는 '참교사상'을 수상하였다. 병환 중에도 선생님은 기르던 사슴을 아끼시어 운명하시기 보름 전에도 움직이기 어려운 몸으로 사슴 우리에 가서 사슴들과 놀다 오시고 운명하기 하루 전에도 우리에게 사슴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슴을 닮은 선생님은 1993년 5월 13일 18시 30분 진주시 칠암동 경상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이승에 남은 우리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였다.

조 경 천 (당시 48세)

慕 인천 시립 공동묘지



- 1945년 7월 29일 평양 출생
- 1963년 고등학교 중퇴후 공장생활 시작
- 1981년 한양합판 입사
- 1988년 5월 한양합판 노동조합 설립에 중추적 역할 담당
- 1990년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출마
- 1991년 7월 1일 노동조합 회계감사로 일하던 중 해고
- 1992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해고후보 판정으로 승소
- 1993년 4월 고법에서도 승소했으나 회사측 복직 목살
- 1993년 5월 19일 심장마비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8년 한양합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주역으로 나서 1991년 해고 될 때까지 회계감사로 한양합판 전체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조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활발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회사측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회계보고를 한 것을 핑계로 해고시켰다.

1993년 4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회사측은 법원의 판결과, '해고된 자는 1심 결과가 끝나면 그 결과에 의해 복직시킨다'라는 단체협약도 무시한채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임금도 주지않고 오히려 사표를 강요하였다. 해고 전부터 가슴의 통증을 느끼고 해고 이후 더욱 건강을 해친 조경천 동지는 1992년 심근경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었지만, 수술비용이 없어 미루다가 '비록 회사에서 일하다 몸이 상했지만 밀린 임금을 받아 수술하여 건강을 되찾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투쟁하였다. 동지는 1993년 고법에서의 복직판결로 현장에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였으나 회사측에 의해 거부되자 5월 19일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조경천 동지를 떠나보내는 이 자리에 우리는 가슴속 깊이 우리나라의 비통함으로 섰습니다. 동지는 살아생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해고노동자들에게 든든한 만행님으로서 항시 어려움 속에서도 차분한 미소를 잃지 않는 소중한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동지는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단의 비운이 이 땅을 휩쓸던 1950년경 어머니와 함께 월남했습니다. 태백산맥을 3개월여 걸어서 내려온 우리 조경천 동지는 자신을 둘러싼 비극을 자신의 맑은 이성으로 파악하고, 그속에서 자신의 울 곧은 중심을 세우기까지가 곧 살아온 인생역정이었습니다.

◎ 추모글

【추모의 글】

조경천 형님이 돌아가신지 만 3년이 되었다.

얼마전에는 민주노총에서 일하던 유구영 동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살다가 떠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진데 문득 죽음이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죽음과 맞닥뜨려 매일매일 죽음과 맞서서 싸우면서 병마의 고통을 넘어서서 자신과 주변을 차분하게 정리하던 분이 바로 조경천 형님이였다.

형님께서 심근경색이란 병을 알고 부천 세종병원에 입원해 있던 92년의 일이다. 세종병원이 심장병 계통의 전문 의술이 높다고 했지만 그곳도 돈이 없으면 그냥 치료해주는 곳은 아니다. 병을 알고도 수술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도 형님은 태연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곳에서 수술받다 죽은 사람들 얘기, 아직 치료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자신의 위중한 병에, 이길 방안을 강구하고 계셨다. 결국 그곳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치료하면서도 형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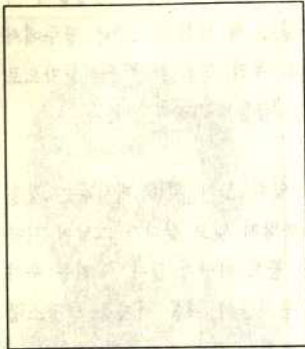
솔직히 말하건데 "치료할 비용을 줄테니 그 돈으로 병을 고치고 이제 노동운동 그만두고 편하게 살라"고 옆에서 술술 바랍잡으면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자신의 알량한 경력을 팔아 고귀한 지조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을 많이도 보아왔다. 우리가 보아온 투사들-많은 동지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쌓아온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목숨을 버리기 전에 먼저 정치적 생명을 빼앗겼다. 이제는 누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지겹다. 하룻밤 자고 나면 변절과 기만이 판치는 세상에 조경천 형님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겐 힘이고, 또 한편 슬픔이다.

우리 사무실에는 그 동안에 민족민주 운동에 헌신하다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불살랐던 많은 동지들의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카렌다가 벽면에 붙어있다. 5월들어 비어 있는 칸을 합해도 1주일이 채 안된다. 80년 광주에서 죽은 영혼들을 빼고 그 이후 우리 곁을 떠난 동지들만으로도(신문에 이름 석자 실린 사람들) 30명이 넘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잊지 않기 위해 제사라는 것을 지낸다고 하지만 1년동안 까맣게 잊고 살다가 그날이 되면 용기종기 모여 향불 피우는 꼴도 마땅치 않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의리를 나누었던 동지들의 이름 석자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제사를 모시는 것은 절박했던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그 정신을 다시 가슴속에 새기자는 의미일 것이다. 조경천이라는 이름이 혼탁한 시절에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 마음의 지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잡스러움을 물리치고 곧은 우리의 한길을 비추도록 그 뜨거움을 새겨야 한다.

동지의 죽음을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정신이 썩고 있다면, 자본가들도 권력자들도 회회낙낙하고 손뼉칠 일이다. 이 책은 3년상을 입은 우리가 형님께 바치는 조그만 예의다. 기쁘게 웃으실 일이다.



1978년 원진레이온 입사후 처리 정련과에서 15년간 근무
 1991년 직업병 증세 발견
 1993년 5월 21일 직업병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78년 입사하여 일하던중 팔다리가 마비되고 우울증, 성격변화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매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이었다가, 91년 원진레이온 전·현직 노동자 1500명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한가지만 직업병으로 발견되었다. 의학적으로는 직업병이었고 법률적으로는 정상으로

판정되어 1년간 방치되는 과정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직업병 증세인 정신분열로 자살하게 되었다. 사망 2일후 노동부는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치 않음으로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67년 6월 대구에서 출생
 1985년 2월 대구 경명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년 2월 대구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졸업
 재학시절 영남대 노래패 <에사가락>에서 활동
 1989년 8월 대구 심인중학교 영어강사로 근무
 1991년 2월 부당해고
 1993년 2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학생부장으로 활동
 1993년 6월 26일 오후 4시20분경 약 2개월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 운명

◎ 동지를 생각하며

6월12일날 박 선생을 추모하면서 지부결성 5주년을 기념하는 동반대회를 가졌다. 평소에 그가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고, 그가 근무하던 심인중학교에서 쫓겨난 후 지부에서 학생부장을 하면서 청소년 열린교실을 여는 데 힘을 다한 탓인지, 그를 보내던 날도 그랬고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그의 죽음과 삶을 되살리기 위해 팔공산 자락의 숲그늘을 타면서 오르내렸다. 놀랍게도 그를 한번도 본 일이 없는 학생들도 그 가운데 끼어 있었다. 이제 박 선생이 추구해 온 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권리, 자주적인 학생회의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미경 1주기 추모자료집 中에서)

◎ 유고글

【일기】

88년 4월 8일. 금
 주여! 간절히 비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민주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대학의 양심을 주시옵소서.
 쓰러져 가는 학우들의 외침을 높여 주소서.
 가난하고 여린 사람들, 그들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이 빨리 오게 하소서.
 착한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정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되게 하소서.

더 이상 그들이 악한 놈들 때문에 피해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눈물을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의연히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악한 마음보다 굳건한 의지를 주소서.
 대학에 진정한 학문과 진리를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 못난 미경이에게 주님,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당신의 자랑스런 딸 되게 하소서.
 주여!

◎ 추모글

【추모의 글】

참교육의 함성으로

한진수

"형, 선생님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너무 못 찾아뵈는 것 같아요. 편찮으시다던데....." 라며 선배형과 나눈 이야기가 그리 오래된 일같지 않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던 중에 갑자기 날아온 소식!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아니
 믿어지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선생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과 얘기하고 농담하
 면서 또 진지하게 여러 얘기들을 나누면서 지냈는데.....
 선생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셔야만 하는
 지 납득이 가질 않았다. 나에게 일어난 현실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참교육을 바라셨
 는데.....

교조에 찾아가면 우리들은 우선 선생님부터 찾았고
 선생님은 우리를 항상 푸근한 웃음으로 반기셨다.

우리는 선생님이 너무나 편했고 좋았다. 선생님과
 함께 라면도 끓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또 저녁 늦은 시간
 에 집으로 가기전 떡볶이 사먹던 기억, 함께 탁구도 치며
 즐겁게 놀던 기억, 그리고 또 우리들이 고민거리를 선생님
 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까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하던 기억들이 아직 생생
 한데 그 때가 불과 얼마전인데 선생님은 지금 계시지않다.
 지금도 전교조로 찾아가면 꼭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찾아오는 것보다 즐
 거운 일이 없다고 하셨다.

그토록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
 던 선생님은 지금 계시지 않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바라시
 던 참교육은 아직 오질 않았는데.....

그러나 선생님은 분명하게 남아 있다.

비록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들리
 지 않지만 우리들의 가슴 속에 뚜렷하게 살아계신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선생님의 염원이
 었던 참교육, 참세상의 건설로 돌릴 때인 것 같다.

그것은 진정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 지금 남
 아있는 우리들이 해야할 일인 것이다.

참교육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 선생님은 영원하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제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참교육의 함성으로 전교조를.....'

[시]

입이여, 그대 앞에 타는 불꽃이여, 눈물이여

제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 빛살 던지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 씻어내리는 눈물 삼킬수록
 그대 입가에 더욱 투명한 웃음 일렁입니다.
 그 웃음은 꼭 맑게 흐르는 물살과도 같고
 푸르른 보리잎같이 청정하기만 한데
 당신은 남아 울부짖는 우리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께서 달려가고픈 곳
 학교였고 아이들 곁이었습니다.
 불같은 마음 눈물 삼키며 달려가고픈 곳
 우리 박미경 선생님보다 키가 큰 해바라기가 있는
 학교였고 아이들 곁이었습니다.
 그 꿈을 우리 곁에 곱게 묻어두고
 이제 임께서는 사루비아나 봉숭아처럼
 우리 곁을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선생님을 떠나보낼 수 없
 습니다.

입이시여,

그대 영정앞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바친 국화 다발과
 촛불 두 자루가
 이 깊은 밤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제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참교육 새 세상을 향해 빛살을 던지는 이, 바로
 입이였고 임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임의 한 생애, 너무 짧은 역정에
 던져진 고난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지만
 그것이 가신 임의 생애를 밝혀주는 빛으로 우리 곁
 에 살아있습니다.

아, 입이시여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 나라 산천에 고이 잠드소서
 우리의 동지, 참교육의 불꽃,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시여

배 창환 (전교조 대구 지부장)

서영호 (당시 31세)

墓 부산 솔밭산 공원 묘역



- 1962년 3월 1일 출생
- 1981년 우석고등학교 졸업
- 1986년 11월 21일 현대자동차 입사
- 1989년 소위원 가입
- 1990년 4. 28 연대투쟁시 선봉대 활동
- 1991년 소위원 활동, 노민추 사업부
3대 집행부 정책연구부장
교양지 "단결과 전진" 편집위원
- 1992년 1월 21일 경찰침투 대비 바리케이트 설치중 차량사고로 해성병원 입원
- 1993년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운명
- 1993년 7월 5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름

◎ 동지의 삶과 죽음

서영호 동지는 91년 3대 집행부 정책연구부장으로
 활동하였다. 91년 12월말 성과분배정의실현 상여금 투쟁을
 벌이고 있던 현대노동자를 정권과 현대재벌은 공권력으로
 짓누르려 하였고, 여기에 맞추어 여론에서는 경찰투입이 임
 박했음을 알다투어 보도하고 있었다.

12월의 매서운 추위속에서 투쟁의 파고는 다소 경
 직되었으나, 상용 5공장 조합원들은 최후의 한사람까지 작
 업장을 사수한다는 결의로 뭉쳐있었다. 서영호 동지도 정문
 을 사수하는 책임자로서 조합원들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92년 1월19일 공권력 투입설이 여론을 통하여 선
 전되면서 긴장감이 가중되기 시작했고, 당시 현장에는 500
 여명의 사수대만 남아있었으나 1만2천의 경찰병력을 동원
 해 회사의 담벽을 둘러싸고 있었다. 급박한 상황에서 서영
 호 동지는 즉각 바리케이트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고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차량 바리케이
 트를 치기 위해 소속 조합원이 운전하던 브레이크와 전조
 등이 작동하지 않는 불량 차량이 동지와 충돌하게 되었다.
 칙흑같은 밤에 전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의 차량을 이동
 운전하다 생긴 사고였다. 동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인 상태로 520여일을 투병하다 끝내 1993년 7월
 1일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일년전 7월5일 우리는 서영호 열사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장례식으로 치렀습니다. 가족들의 오열과 조합원
 동지들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오열속에서 수백의 만장파
 꽃상여를 앞세우고 해성병원, 현대자동차 본관 잔디밭, 수
 출선적관리부 너른터, 동구 시민운동장에서 발인제와 영결
 식, 노제를 지낸 뒤 양산 솔밭산 공원묘지에 노동열사 서영
 호 열사의 묘비를 세웠습니다.

서영호 열사가 가신 뒤에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내에서는 회사측의 부당한 노동탄압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은 문민정부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
 고 여전히 노동자의 생존권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도 날로 조직화되
 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자 단결과 연대는 어용노총을 박
 살내고, 진정한 노동자의 조직인 민주노총 건설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 유고글

[자기 소개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
 동으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고른 성장이 아니라 기형적인
 성장)의 주역인 우리 노동자를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물 강
 요하는 저들의 비인간적 행위에 분노하며 임금동결, 노동운
 동 말살책동 등 노동자를 탄압하는 저들의 의도를 깨부수

고 민중의 자주권을 수호해야 하겠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뭉뚱아리뿐인 우리 노동자가 악덕 자본가와 기득권 유자를 위해 노동자와 민중을 탄압하는 정권에 대항하여 노동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은 단결뿐입니다. 그 단결은 의식화와 조직화로 결정될 것입니다.

유신교육과 관제언론의 영향으로 민중(노동자)탄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올바른 의식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홍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시 자신의 견해를 소개한 글〉

◎ 추모글

【시】

“산자의 투쟁으로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서영호 동지여, 동지여

이제 가슴팍의 슬픔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슬픔, 이 분노

결코 콘베이어벨트위에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결코 자본가의 뚝고물에 날려버릴 수 없습니다.

서영호 동지여, 동지여

입술이 타도록 외쳤던 동지의 섯소리

가슴이 터지도록 외쳤던 동지의 역사의 진실

.....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세워나가는

자랑찬 노동자의 힘찬 기상이 있습니다.

서영호 동지여, 동지여

산자가 따릅니다.

산자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우리 산자가 동지의 뜻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서영호 동지여

영원한 동지여 편히 잠드소서

김 주 리 (당시 29세)



- 1964년 2월 전남 목포 출생
- 1982년 이화여대 정외과 입학
- 1989년 우진상사, 진영물상입사
- 1992년 해고자들과 함께 미모사 설립
- 1993년 7월 미모사 근무중 화상,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 1993년 8월 8일 화상 후유증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대학을 다니며 현실의 모순을 알게 되었고, 졸업 후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 노동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미싱을 배워 취업하였다. 부평 공단과 주변 봉제공장에서 활동하다 해고 당한 후 동료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생산 공동체를 만들었다. 동지가 죽기전 모든 것을 바쳤던 '미모사'는 가장 긴 시간을 일하면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인간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봉제공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 결성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계를 해결하고 스스로 주인되는 공장을 이루기 위한 생산 공동체이다. 동지는 '미모사'에서 작업 중 화재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지들의 품을 떠나고 말았다.

임혜란 (당시 28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65년 4월 17일 서울 출생
- 1984년 숭의여고 졸업
고대 가정교육학과 입학, 고대 기독교학생회 동아리 활동 시작
- 1988년 운동 위해 중퇴, 인천 링크시스템 입사
- 1989년 대한 트랜스(주) 입사, 노동조합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1990년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해고당함 업무방해 혐의로 6개월간 옥고를 치름
- 1991년 인천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노동 선교문화원 창립에 참여
문화원내 담방울 산악회 간사로 활동
- 1992년 9월 17일 백혈병으로 입원, 투병활동
- 1993년 9월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운명

최웅 (당시 29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64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 출생
- 1983년 강릉고 졸업, 서강대 물리학과 입학
동아리 '탈' 연구회 가입 활동
- 1986년 노동운동을 위해 인천으로 이천
- 1987년 경동산업 입사, 풍물패 활동 및 디딤돌 소모임 활동 전개
- 1989년 경동산업 해고, 인해협에서 간사로 활동
- 1990년 인천민중교육연구소 실무간사로 근무
- 1992년 인천민중연합 노동자위원회 활동
- 1993년 인천민중연합 부설 '우리' 노동상담실 노사부장으로 근무
- 1993년 10월 26일 신혼여행 중 사고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87년 극심한 산업재해로 1년에 잘린 손가락만 한가 마석 나온다는 경동산업에 입사, 풍물패 활동과 민주파 모임인 디딤돌의 열성적인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지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한 사측에 의해 89년 봄에 해고되었고, 이후 90년초까지 인천지역해고자협의회 실무자로 근무하며 복직투쟁을 전개하였다. 90년초 인천민중교육연구소와 92년 인천민중연합 상담실 실무자로 근무하였으며 전두환정권 때부터 계속해온 병역징집 거부투쟁을 계속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방문조차도 커다란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놓이였다. 동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2년여 가까이 새벽에 아파트 자동차 세차를 해오고 있었으며 일주일에 3번정도 중학생 과외지도를 하는 등 참으로 억척스러운 생활을 꾸려나갔다. 처가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며 노동자의 삶을 결의하던 10월 26일, 그러나 그날 이후 신혼여행에서 불의의 조난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최웅 동지를 생각하며 -유현상이라 불리웠던 노동자 93년 현상이는 결혼하였다. 지지리 고생만 하다가 어려움을 헤치고 결혼하는 거였기에 많은 동료들이 참석하여 결혼을 축하하였다. 그날 서강대 운동장에는 가을 하늘에 흰 구름이 한가로이 떠다니고 있었고 신랑, 신부를 비롯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한 하늘에 조각들을 던지듯

싱그럽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평안했다. 그 동안의 저성과 고통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상이는 88년에 경동산업에 들어와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서강대를 다닐 때에는 탈춤반에서 활동했다 한다. 그 때 현상이는 동료들에게 '미키마우스'란 애칭으로 불렸다 한다. 그 애칭이 가져다주는 느낌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가져다주었다. 현상이는 경동산업에 노조민주화 조직인 '디딤돌'을 조직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디딤돌이 풍물패로 자리잡는데 이전에 학교에서 배운 경험을 심본 발휘하였다. 그러나 현상이의 현장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였기에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회사측은 디딤돌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하였다.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디딤돌 회장단에 대한 징계회부 이에 디딤돌 회원들과 조합원들의 농성, 그리고 결국에는 분신하기에 이르렀다. 두 동지가 운명하고 대부분 구속되었다. 현상이는 당시에 병역 기피 중이었기에 이 투쟁에 결합하지 못했다. 그는 이후에 많은 번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지역의 노동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신분이 자유롭지 못하여 마음대로 회사 앞으로 나가 조합원들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였다. 현상이가 힘들어 할 때 나는 조합원을 데리고 현상이를 만나곤 하였다. 조합원들을 만나면 현상이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힘차지곤 하였다.

항상 웃는 얼굴, 커피를 너무 좋아해 쇠주 마시듯 커피를 마시던 유현상.

그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 세차를 몇 년 동안 하였다. 운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무능한데 비해 현상이는 무척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갔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사귀어 왔던 동지와 결혼하여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하여 애썼다.

그러던 현상이가 결혼한 것이다. 그날 참석한 모두는 그날의 분위기처럼 앞으로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이루어 질 것으로 낙관하였다.

현상이를 신혼여행 보내고 나서 우리는 그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현상이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강릉행 밤 기차에 몸을 실었다. 밤새 쇠주를 기울이며 새벽녘에 강릉에 도착하였다. 현상이는 바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뒤에서 덜친 파도에 현상이가 색시와 함께 바다에 빠졌다. 바닷속에서 몇 번 자맥질을 하던 현상이는 색시를 바위 위에 밀어 올려놓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현상이의 장례를 치루는날 우리는 털털거리는 운구차를 타고 미시령 고개를 넘어 마석으로 향하였다. 그날 미시령 고개에서 본 동해 바다는 쪽빛으로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때 쓸프도록 파란 하늘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 그리고 그때의 하늘과 바다, 설악산의 모습이 현상이의 운구 행렬과 더불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를 묻으며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불러 주었던 그의 이름도 함께 묻혔다. 유현상이라고 써어 있던 주민등록증이 그의 관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 준 최 웅이란 이름을 죽어서 다시 찾았다. 한 평생 노동자로 살아갔으면 찾지 못했을 이름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돌아오며 이런 말로 우리 스스로를 위안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다가 가장 행복한 때에 죽었기에 현상이는 서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인지 항상 웃음을 머금고 살던 현상이는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 주고 있다.

◎ 유고글

【편지】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다가 네 생각이 나서 글을 쓰기로 했다.

어디에서 또 열심히 살고 있으려니 하던 기대는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너를 위해서 말이다.

삶이란 기나긴 여행을 하는 것이다. 험난한 산과 물줄기와 새와 꽃, 나무, 풀, 이런 것을 지나쳐 가는 것이리라.

험난한 산등성이를 오를때는 튼튼한 장비와 악다구니가 필요하듯이 인간에게 닥친 시련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땀이 비오듯 흐르는 것을 식혀주는 시원한 산바람이 있듯이, 고뇌의 눈물을 이겨내는 것은 그 이후, 한 인간으로 성숙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기쁨이라 여긴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 넉넉함은 마음먹어야 바뀌는 것만은 아니더라!

자신과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넉넉히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부단히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 생활을 아는 것.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소박한 생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이웃이 많다. 그네들의 삶도 어찌 시련이 없었으리! 허나 이겨가고 있으며 소박하게나마 자신의 삶의 지표를 갖고 있음이 좋아 보인다.

그 속에서 난, 너는 어떤 모습이었나!

참, 어설피고 작기만 하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 갖는 고뇌의 흔적은 남아있으나 때론 체념으로, 때론 슬기롭게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본다.

날씨가 참으로 화창하다.

봄날, 훌훌 떨어버리고 떠나는 여행길. 편하고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 한잔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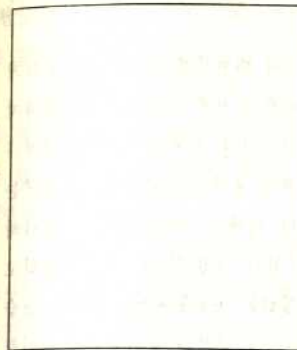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행복이라 여겨진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유보다 좋은 치료법은 없다고 본다.

92. 5. 20.

김성운 (당시 62세)



1932년 10월	강원도 철원군 출생
1971년	택시업계에 입사
1980년 7월	상호운수주식회사 입사
1986년 12월 ~ 1992년 12월	상호운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과 고문 역임
1994년	오전 5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드리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자결

◎ 동지를 생각하며

【남겨진 말】

저기 눈물과 피와 땀으로 노동터 휘휘 돌아오는 거리마다 매연처럼 달려붙는 택시제도 우리들의 염원과 희망 짓이기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속에서도 63년 노동의 삶 한가닥 검은천에 실려 나부끼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손가락질과 비난 맞받으며 허허- 허허 낮뜨거운 웃음이기도 하고 살기위해 어쩔 수 없네 숙달된 뻔뻔스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택시기사로 살아왔습니다.

63년 세월동안 그림자 처럼 들붙었던 끈적한 노동들을 거부하다 못해 외면타 못해 온몸으로 껴안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한덩이 되어버린 아-아 그 기나긴 노동의 세월 이젠 작별을 고할 때입니다. 5통의 유서를 다 쓴 이것으로 몸서리로 남겨진 사람들

그 피울음 속으로 살아남고자 떠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워 비난과 손가락질에 가위 눌렸던 그 세월들에 짓눌려 미어질 듯한 가슴 열어제껴 소리칩니다. 잘못된 택시제도를 개혁하라! 택시제도 개혁하여 근로조건 개선하자! 저기 택시에 매달려 필력은 검은 천으로 눈뜨겠습니다. 저기 칼바람속으로 휘-일 날아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슬며시 피어날 들꽃의 생명으로 떠납니다. 뒤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아-아 동지여 노동속에 성실한 삶으로 모범이셨던 진짜 노동자시여 아버지여 아버지시여 살아오신 노동과 함께 자상함이셨던 노동의 역사이시여 저기 양지바른 봄벌아래 들꽃의 해맑음이신 이름이시여 택시기사 김 성 운 남겨진 자들로 부끄러워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시여

◎ 유고글

【탄원서】

김성운 동지가 남긴 '김영삼 대통령'에게 드리는 탄원서

김영삼 대통령님에게 탄원서를 올리려 하니 가슴이 터질것만 같습니다.

불초 김성운은 1971년 7월부터 택시기사로 입문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상호운수 기사로 만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에도 단 한번도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근무 금잡기로 오직 가정에만 성실하게 지냈습니다만 이제는 후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역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택시기사들의 생계보장을 약속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5, 6공을 통한 위정자들의 뇌살종은 식언으로 끝났고, 우리 택시기사들의 오직 하나뿐인 희망을 송두리채 뽑아갔습니다.

그간에 온갖 비리와 부동산투기로 주거비는 몇급절로 인상되었고, 덩달아 전세방 값도 펄쩍뛰어 힘이 없어 사글세 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던 우리 기사들의 참담한 생활은 힘겨움 뿐입니다.

오전, 오후 2부제 운행으로 1부 운전사인 오전반은 정채된 차량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일하면서 받은 보수는 기본급 302,090 + 승무수당 46,800 + 야간수당 47,260 = 396,150, 일급 396,15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은 각 회사마다 회사 실정이 어렵다고 맨투맨 공작으로 규정에도 없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임금격차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2,300원씩 더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채된 교통란 속에서 헤메다가 임금이 미달되면 급료에서 공제됩니다. 고로 오전반 일부는 임금미달 방지를 위하여 오전 3시에 굳은 얼굴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살기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급료가 고작 삼십구만육천백오십원이라면 이는 주거비도 안되는 돈입니다. 생활은 무엇으로 합니까? 자녀교육은 무엇으로 시키며 후생비는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썰득에서 인심나고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너머 가지 않는 놈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때문에 온갖 규제를 망각한 듯한 몸가짐으로 운전을 하면서 어데가요? 명동 혹은 (교통정체지역) 볼것도 없이 (시간 기준 임금미달 내 임금에서 내줄 순 없는 것) 앞으로 내달리는 승차거부 및 부당

요금징수와 합승행위 한마디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신한국 창조의 시대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 입니다. 대통령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택시요금 현실화에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운전기사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승차거부, 합승행위 이로인해 얻어진 불명예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나쁘다고 인정하는 기사, 어린 친구들끼리도 아버지가 택시 기사라고 말 못하는 세상(골려주기 때문에). 그간에는 긍지를 갖고 일을 하였으나 이제는 허탈뿐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민자당에서 택시에 관한 입법예시를 보고 기뻐하고 희망을 갖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독려도 했습니다. 위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2월중에 택시요금에 인상된다고 예시되었습니다.

기본요금 천원, 주휴요금인상 합20%. 어느 분이 기안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입니다. 있는 분이 없는 사정 알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택시 기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에 와 있는 택시기업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명예와 같이 짓눌리고 있는 불명예도 거두어 주시고 보다 차원 높은 인격형성에 매진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하나만 믿고 파출부로 뛰는 내조자에게도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글세를 사는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택분양은 근로자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꼭 택시요금 현실화를 이룩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하였으나 초개인생으로 살던 택시기사의 마지막 호소와 절규입니다.

상호운수 주식회사 만14년 근속기사 김 성운 올림

◎ 추모글

【성명서】

택시노동자 故김성운 열사를 추모하며

택시노동자 다 죽이는 잘못된 택시제도 즉각 개선하라!

'잘못된 택시제도의 개선'을 외치며 어제 유명을 달리하신 故 김성운 열사의 죽음은 질곡의 삶을 평생의 업으로 살아야만 하는 15만 택시노동자들 모두의 죽음이기에, 고인의 영전앞에 가슴에이는 고통과 통한의 심정으로 애도를 표한다.

故 김성운 열사는 14년간이나 상호운수(대표: 우종석)에 근무하면서 단 한 번의 무단결근도 하지 않은 성실한 택시노동자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으며, 보등급 1천만원에 월 45만원의 사글세방에 살면서도 딸을 대학원에 보낼 정도로 헌신적인 가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평범한 노동자이자, 가장 열심히 살아왔던 노동자 김성운 열사가 죽음을 택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열악한 택시임금제도와 잘못된 택시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택시임금제도는 공익사업의 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전근대적인 사납금식 임금제도가 성행하고 있다.

고인이 몸담고 있는 상호운수만 보더라도 현재 190여명의 노동자중 24명만이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자의 강요로 인해 불법적인 정액제, 도급제로 근로하고 있다.

하루 사납금 52,000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시간에 8천원을 벌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속, 법규위반, 합승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렇게해서 사납금을 채워야 겨우 40여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못채운 만큼의 금액을 월급에서 깎아야 하는 19세기에 나 있었음직한 임금제도가 아직 우리 택시노동현장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이나 현재의 문민정부나 달라지지 않고 있는 잘못된 택시정책과 전근대적 택시운송사업체계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을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자,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불법적이고 변태적인 지입제, 도급제는 정부당국의 방조하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입료, 사납금, 연료비 등 차량운행경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택시기사로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승차거부, 무리한 합승이 불가피하게 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기사에게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택시노동자는 자식조차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파렴치범이 되었다. 게다가 개인택시를 빌미로 하여 봉건시대나 통용되는 구시대적 노동탄압의 악령이 각 사업장마다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고인이 유서를 통해 지적했다시피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월급제를 실시하겠다"고 역대 대통령마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결국 5명의 자녀와 부인을 거느린 성실한 가장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다.

이에 우리 택시노련은 열심히 일해도 5만원이 넘는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비닐근으로 목을 매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당국과 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엄숙히 촉구한다.

1.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 즉각 실현하라!
2. 불법적인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즉각 철폐하라!
3. 대통령 공약사항인 택시제도개선 즉시 시행하라!

더불어 아직까지 故 김성운 열사의 장례일조차 잡지 못하게하는 회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국 15만 택시노동자의 이름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4. 1. 2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광 남



- 1961년 1월 7일 서울 출생
- 1980년 서강대 문과대 입학
- 1983년 서강대 민주화 시위 주도로 구속
-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의 대중모임 '대나무'에서 활동
- 1986년 구로 동일기업 노조설립 투쟁으로 구속
- 1988년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편집위원
- 1990년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노동분과 국제분과 연구원
- 1991년 서강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 1992년 - 93년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홍보부장
- 1994년 2월 19일 위암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어렸을 적부터 조용한 성격이었던 김상옥 동지는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바른 말을 잘하고 항상 겸손했고,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했다. 또한 빼놓지 않고 개근상을 받는 근면한 모습을 보였고, 늘 정도(正道)를 걷고자 한 사람이었다.

그런 동지가 운동을 접하게 된 것은 80년 서강대 문과대학에 입학하고부터였다. 10.26사태와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소용돌이속에서 1학년을 맞이한 김상옥 동지는 점차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고 동문선배의 권유로 향린교회 대학부 모임에 참가하면서 사회모순과 지식인의 역할 등이 담겨있는 책들을 접하게 되고 2학년때 씨클 "江"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운동권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운동은 83년부터 대 정부투쟁을 본격화하고 졸업정원제, 강제징집 등의 문제와 광주학살의 책임을 물으며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한다. 서강대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김상옥 동지는 이론가 또는 조직가형이라기 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실천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학내 시위에 가담해보면서 '요주의 운동권'으로 찍힌 상태였다. 4학년에 들어설 무렵 군에 입대하라는 영장을 받은 동지는 그에 굴복하지 않고, 군입대를 하루 앞둔 3월24일 인문사회관 3층 난관에 올라서서 "학우여"를 연발하며 시위를 주도했다. 이것으로 김상옥 동지는 구속되었고, 서울구치소와 영등포 교도소, 충남 홍성 교도소를 옮겨다니며 책도 보

고, 단식농성도 하면서 시야를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김상옥 동지가 출소한 83년 12월은 전두환 정권의 유화 제스처인 학원자율화정책으로 인해 '유화국면'이 조성되던 시기였다. 학생운동은 학원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석방된 사람들은 복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던 때였다. 그러나 김상옥 동지는 복학조치가 정권의 기만술책이라고 보고 복학을 거부한 채 노동운동을 모색하게 된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듯이 동지도 우리사회의 모순에 가장 짓눌려 있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노동자계급 속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하고자 한 것이다. 동지는 오랜 준비 없이 곧 실천에 옮겼다. 첫 발을 들여놓은 곳은 농약을 포장하는 회사였다. 지독한 농약냄새를 마셔가며 처음으로 힘든 노동을 하게 되지만 동지는 즐겁게 생활했고, 이후 혼자 구로와 시흥의 소규모 공장을 돌면서 노동자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84년부터 노동운동은 개별기업단위를 넘어 연대투쟁을 하기 시작했고, 초보적이기는 하나 정치투쟁으로 발전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이 등장했다. 이 무렵 동지는 우연히 '대나무'라는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혼자 묵묵히 노동현장에서 일해왔던 동지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대나무'는 구로공단내 선진적인 남성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조직이었는데 서노련 지도하에서 구로지역의 가두시위와 현장지원 투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85년 말부터 한국사회의 기본모순과 운동노선에 대

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86년 5월에는 수도권 거의 모든 운동단체가 모여 인천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동지는 시위의 선봉에서 붉은 머리를 두르고 노동자의 깃발을 들고 서있었다. 하지만 동지는 운동권 내부의 과열된 논쟁에는 휩쓸리지 않았다.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소모적으로 진행되는 것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김상옥 동지는 5.3시위가 있기 전 4월에 구로에 있는 동일 기업에 입사하였다. 6월에 노조결성을 준비하게 되었지만 회사측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5명의 학생출신이 노출되어 나머지 4명은 피신하게 되었는데 동지는 구속을 각오하고,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설립을 위해 싸웠다. 결국 동지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고 '노동운동이 객관적인 역량의 단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정하지 않았는가? 선도적인 투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두번째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87년 6월항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0개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동지는 설없음이 거리로 나가 시위 물결에 합류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곧 양평동에 위치한 플라스틱 공단 내 종이박스를 만드는 한 회사에 입사했다. 단기간의 노동운동에서 승부를 내기 보다 멀리보자는 생각에서 다시 평범한 노동자 생활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88년 6월경 공장이 파산직전에 이르러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동지는 한국민주노동자연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동지는 기관지 [민주노동]을 발간하는 일을 도우면서 영등포·구로지역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서울남부지역급속노동조합에 참가하는 한편 11월에는 문래동에 위치한 소규모 철공장에 취업했다.

90년 1월 새해 벽두, 동지에게는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쳤다. 공장에서 무거운 철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동지는 당분간 공장에 다닐 수 없어 무척 아쉬워했다. 그러나 동지는 시간이 있을 때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에 나가 제3세계 노동운동을 비롯한 국제문제를 연구했다. 그곳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 [제주4.3항쟁]과 [버마 현대사]를 펴내는 데도 도움을 주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두 번째 수술을 받고 통증은 없어졌지만 현장일을 하기에는 무리였다. 90년 가을에는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노

동분과를 이끌었던 동지는 노동문제 이외에도 정치상황이나 재야운동의 대응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동지의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사고는 연구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고, 또 투박하지만 의리있는 행동을 보여 동지와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91년부터 한노련에서 다시 일하게 된 동지는 홍보 책임을 맡아 의정부 집과 영등포 사무실을 오고가며 밤늦게까지 일했다. 동지는 소모임에서 산재보상등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문제들을 연구했고, 노동조합의 역사강의도 맡았다. 또 91년부터 2년동안 서강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의 직책도 맡았다. 몇가지 일을 동시에 하느라 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불안정하게도 보였지만 동지는 어느 한가지도 대충 넘어가질 못했고 가볍게 보질 않았다. 접하는 일마다 동지는 새로운 시작으로 여겼다. 92년 대통령선거 이후 허탈한 심정과 재야운동을 떠나는 사람도 하나 들썩 일어나는 속에서도 동지의 신념은 꺾이지 않고, 앞으로의 할 일로 머리가 가득찼다. 그때 한 여성을 만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동지에게는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대수술을 받게 되는 불운이 닥쳤다. 동지는 하루라도 빨리 병석에서 일어나 머릿속에 채워둔 일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국 동지는 봄이 피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다.

김상옥 동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독재권력에 항거한 지식인으로, 몸소 실천한 노동자로, 양심과 신념을 지켜온 사람으로, 시대와 민중과 함께 살다 간 큰 삶이었다. 동지의 삶과 운동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픔, 각성, 용기,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 동지를 생각하며

노동자의 영원한 벗이여!

조경수

김상옥 열사!

열사께서는 1980년대 초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한 학생운동가로, 그 후 10여년 동안은 노동현장에서, 노동단체에서 노동운동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투사였습니다.

열사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다가 구속되고 해고되기도 하였고, 87년 6월 민주항쟁 현장에서, 그리고 많은 투쟁현장에서 앞장서서 노동해방과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열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열사는 일상 생활에서도 항상 부지런하고 깨끗한 일을 마다않고 도맡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주던 열사였습니다.

열사는 노동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허리를 다치는 등 이나라 노동자가 겪는 고통을 직접 체험했던 실천적인 운동가였습니다. 허리를 다쳐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열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국민주노동자연합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국민주노동자연합에서 노동운동의 길잡이인 [민주노동]을 편집하고, 홍보부장으로 활동하면서도 허리만 좁아나면 노동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노동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노동해방을 이루겠다던 김상욱 열사!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열사가 못이룬 그 꿈을 남아있는 우리 노동형제들이 기필코 이룰 것입니다.

열사여!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영결해야 할 이 시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투하던 당신의 주검앞에서 있는 우리는 이제 당신을 보내야 할 시간 앞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열사를 사랑하던 부모형제, 동료, 선후배와 함께 이 슬픔을 나누고 열사의 뜻을 간직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신명을 바쳐온 길을 우리가 뒤를 잇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해 같이 일해온 남은 이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당신이 못이룬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열사여!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최성묵 (당시 49세)

墓

- 1945년 11월 14일 안성에서 출생
- 1969년 양성중학교 입학, 평화버스에 입사
- 1985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농성 참가
- 1986년 평택 시외버스인 서울여객입사. 노조대원으로 활동
- 1990년 성보여객입사. 노조대의원, 노사의원, 상집위원 활동
- 1994년 3월 11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탄압에 항거. 분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최성묵 동지는 동료기사들의 억울한 상황과 회사측의 부당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다 노조위원장 선거중 회사는 선거당시 선거 대책본부에서 활동하던 11명을 면직하거나 사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당일 동지는 이러한 부당행위와 근로조건에 항의하러 갔다가 전무와 동반분신에 이른다.

◎ 동지를 생각하며

당신도 주체성을 찾고 독립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피해를 입혀겠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단지 과거의 습관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아들이거나 익숙해 있는 것이다. 희생자적 함정에서 탈출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한다. 건전한 습관도 불건전한 습관처럼 연습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다. 당신의 생활장면을 평가한다는 말은 당신이 피해를 안받도록 정신을 가다듬고 만날 사람의 욕구가 무엇이며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행동방향이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 추모글

【신문기사】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목숨을 건 극한 대립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평택시의 성호여객 전무와 운전사가 불에 타 숨진 사건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회사측이 근로자를 어떤식으로든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근로자들의 저항이 빚은 전근대적인 사건에 다름아니다.

성호여객은 이렇듯 운수회사의 일반적인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도 최악의 상태이다. 타회사보다 3일을 더 일하고도 임금수준이 20~30% 정도가 낮고, 조그만 사고라도 일어나면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노동자들은 운전을 해야만 했다. 운수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측이 당연히 사고처리를 전담해야 함에도 성호여객은 안전사고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한 운전기사의 대다수는 인맥을 통해 입사했기에 회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번 성호여객 방화사건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두가지 사실에 비애를 느꼈다. 첫째, 아직도 '분신'으로 항거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현실이 이땅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사회의 전근대적 인맥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맥이 가진자에게는 출세의 지름길이 되지만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를 앗아가는 암적인 요소가 됐다는 점이다.

(시민의 신문 중에서)

김낙성 (당시 39세)

墓 금촌 기독교원묘지



- 1955년 12월 3일 충북 음성 출생
- 1975년 12월 19일 용산공업고등학교 통신과 졸업
- 1991년 5월 한국통신노조 개혁모임에 참가
- 1992년 4월 서울지방본부 대의원 피선
- 1992년 5월 민주개혁그룹 대의원 다수 확보 활동 주도
- 1992년 7월 서울지역 노민추 결성
- 1993년 3월 조합집행부의 징계기도에 맞서 저지 투쟁 전개
- 1993년 11월 전국 노민추 결성
- 1993년 12월 복지후퇴 및 직선제사수 투쟁위원회 결성
- 1994년 4월 17일 백혈병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김낙성 동지는 미아전화국 창동분국 시절 기독교 신우회 활동 등을 통한 성실함으로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91년 4월의 대의원 선거에서 어용지부장을 제치고 선출되었다. 동지는 자신을 택해준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해나갔다. 동지는 이후 91년에 어용노조의 부당간섭에 항의하는 등 농성에 적극가담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동지는 어려울 때 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일으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93, 94년에는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여용산별 노조를 만들려는 공작을 펴는가 하면, 위원장, 지부장 임기를 3년 연장하는 등의 한국통신 노사 양측의 반민주적 음모에 맞서 모든 정신과 육체를 민주노조 사수에 바친 것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김낙성 동지는 우리가 생각하듯 투쟁적이거나 과격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조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지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곤 했는데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강렬하게 주장을 했다.

동지는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존경받았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러한 동지가 어떻게 노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까.

미아전화국 창동분국 시절 기독교 신우회 활동 등을 통한 성실함으로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김낙성 동지는 91년 4월의 대의원선거에서 어용지부장을 제치고 선출되었다. 동지는 자신을 택해준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을 해나갔다. 그러던 중 당시 창동반장이었던 박문형동지를 통해 민주개혁그룹을 알게 되었다.

동지는 민주개혁그룹과의 첫 만남에서 '불온한 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달 후 서울지방본부위원장 선거에 찾아오게 된 그는 밤새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동지들의 모습속에서 민주개혁그룹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91년 봄 한국통신은 사용자와 노조가 합작하여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던 때였다. 82년 노조가 창립된 이래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조합원위에 군림하여 노동조합을 자신의 출세 도구로 이용해왔던 소수 어용세력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들은 사측과 결탁하여 91년 11월 11일 데이콤과의 국제전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체신부의 부당간섭에 항의하던 22명의 동지들을 해고 등 징계하는 등 민주노조의 싹을 아예 없애려 기도하였다.

또한 창동반장이던 박문형동지도 해고를 당하자 김낙성 동지는 농성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

적인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동지는 어려울 때 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일으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93, 94년에는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어용산별 노조를 만들려는 공작을 펴는가 하면, 위원장, 지부장 임기를 3년 연장하는 등 한국통신 노사 양측의 반민주적 음모에 맞서 모든 정신과 육체를 민주노조 사수에 바친 것이다.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날도 부모님 걱정하신다고 집에 알리지 않고 상을 당한 동료집에 가서 함께 밤을 새우며 위로하는 등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동지들과 함께 했다.

동지는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동지들을 뒷받침하며 굶은 일을 도맡아 했다. 의지가 부족하여 뒤로 쳐지는 동지가 있으면 며칠밤을 대화해서라도 동지를 다시 투쟁의 대열에 끌어올리곤 했다.

"김낙성 동지를 한마디로 집약하여 표현하자면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같이 활동했던 동지가 스스로없이 "헌신적인 자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김낙성 동지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진정한 노동운동가였다.

◎ 추모글

잊지 못할 동지 김낙성

91년도 내가 미아전화국 지부 창동분국 반장시절 김낙성 동지는 신우회 회장으로 분회 임원으로 나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같이하였다. 나와 동지는 늘 신앙에 대한 토의로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러던 중 내가 데이콤과 국제요금 저지 투쟁으로 해고와 징계 전출을 당하여 창동전화국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를 창동 반장 후임으로 내정했다. 징계당한 동료들이 반대했다. 그 이유는 너무 온건적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나는 책임자는 김낙성동지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여 그를 후임자로 정했다.

당시 김동지는 민주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관심은 갖고 있었다. 어용 및 사측은 민주노조를 과격, 파괴, 폭력,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매도하여 악선전 하고 있어서 선입견이 별로 좋지 않았고, 민주노조 활동

하는 동지들 모두가 해고징계를 당한 상태라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김동지의 고등학교 동기인 안운선동지를 통해 설득을 부탁하였고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김동지는 노민주 활동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김동지에게 나는 늘 죄스럽게 생각을 한다. 작은 체구에 안경속으로 빛나는 눈빛으로 그는 지방으로 전출된 나의 처지를 들봐 애를 써주려고 했다. 그의 마음에는 나로부터 짐을 떠맡겨진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한다.(나의 자리에 앉은 것으로)

그러던 중 창동전화국이 개국되어 초대지부장에 당선된후 단식농성투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사측의 통제로 지부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창문을 통하여 그와 이야기를 했지만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자신은 5일간 단식한 상태의 몸이었지만 구미에서 올라온 나를 오히려 내려 가려면 힘들겠다고 염려했다.

94년도 직선제 사수 투쟁(전국대의원대회 3월 말경 지리산)으로 정신없이 조직을 하고 다닐 때 김동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장현일 동지가 외로운 투병 생활에 작으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박동지가 한 번 올라와서 위로 해주시기 바란다는 전화를 받았다.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올라오지 못하고 임종하기 몇시간 전에야 그의 문병을 왔다. 무균실에 누워있는 그의 면회는 사절되었고 토요일 오후 다시 구미로 갔다.

그 다음날 임종 소식을 전해 들었다. 39세의 일기로 오로지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대중의 뜻을 좇아 노동운동에 앞장섰고, 타의 불행을 본인의 아픔으로 느끼는 동지였다. 혈우병으로 병상에 누운 직원 자체가 있었다. 가정도 어렵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안스럽게 생각한 동지는 술선해서 불우이웃돕기로서 창동, 상계, 미아전화국에서 신우회가 주축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제는 그가 열망하던 노동조합이 민주화 된지 어언 2년, 그의 크나큰 희생정신을 생각해본다. 경기도 탄현에 그의 모습을 묻고 돌아오던 부산행 열차 안에서 마지막 그의 모습을 그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지난 시절 대전 노민주 모임에서 결의에 찬 모습으로 민주당 당사 농성을 주장하던 그의 모습이 그와의 생전 마지막으로 기억이 될 줄이야.

◎ 유고글

【동지의 글】

I.
 이 세상에는 많은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입니다.
 표준 시각이 있습니다.
 그곳에 맞추어야 합니다.
 내 시계가 표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계가
 우리 나라 같으면 중앙관상대에서 들려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곳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 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일본도 미국도 아닙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시각을 맞춥니다.
 누구나 그곳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리엔트건, 오메가건, 브로바 건……
 싼 것에서 금·은·보석 비싼데 이르기까지
 모든 시계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놓기
 않으면 차를 놓치고 말것입니다.
 당신의 시계는 지금 몇시입니까?
 우리는 늘 자신의 시계를 중심으로 모두를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노정을 일생을 아니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읽으십시오.
 그 시보를 들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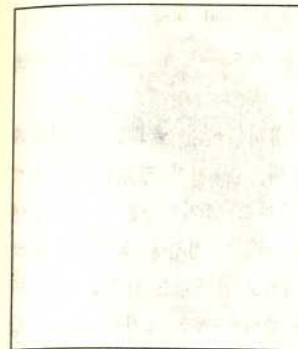
사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로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분주합니다.
 잠깐 손을 멈추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때로 우리의 발걸음은 매우 바쁘기도 하고 매우
 태평하기도 합니다.
 이제 잠깐 발을 멈추고
 지나온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가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서 계심을 확인합시다.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묵묵히 듣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내가 분주할 때 마칠 때까지 기다립시다.

II.

신앙이란 무엇인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가?
 내가 무엇인가? 그리 대단치도 않은 내가
 허황되어 자신을 망각한 채……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남을 구원한다고?
 전도하여 먼저 자신을 구원하라 남을 돕기전에
 먼저 자신을 도우라. 참으로 불쌍한 사람을
 찾으려 하는가. 나의 부모, 누나, 동생들……
 물론 「나의」 라는 소유격이 계속 붙어도 문제이겠
 지.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 또 나 의 모습 이것은
 변명할 수 없으며, 잊으려 하지 말라. 나는 잊을지 모르지
 만. 세상과 환경 은 나를 알지 않는가? 저의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 형편을 아시도다. 참으로 당신의 선하 신 뜻
 대로 인도하소서.

임종호 (당시 30세)

墓 化 장



1964년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에서 출생
 1982년 동양기계 입사 (현 통일)
 1983년 창원기계공고 졸업
 1987~88년 정당방위대 활동
 1988년 노동조합 15년차 대의원 역임
 1989년 금성사 창원대로 가두투쟁으로 1차 구속
 1991년 1년 6개월의 실형만기로 석방. 노동조합 18년차 대의원 역임
 1992년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해 굴뚝농성을 벌이다 2차 구속,
 쟁의조정법과 업무방해로 실형10월, 재판도중 법정 모독죄로
 3년 실형 선고
 1994년 9월 18일 진주교도소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임종호 동지는 89년 6월 금성사 창원대로 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수배, 구속되었고 92년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한 굴뚝 투쟁을 벌이다 또다시 구속되었다. 2차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도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것에 항의, 풀어
 진 수갑을 재판관에게 던져 법정모독죄로 3년의 실형을 추
 가선고받고 청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동지는 계속되는 고
 난의 실형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동지들에 대한 따뜻한 사
 랑을 잃지 않고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독방
 수형생활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로 94년 8월 진주 교도소로
 이감되었고 그 해 9월18일 독방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동지들 곁으로 돌아왔다. 교도소에서는 자살로 판명했으나
 여러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투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
 지게 되고, 조직 보존논리로 그것을 합리화시켜내곤 한 것
 같군요. 그러나 싸워야 할 시기임에도 투쟁을 피해나가려는
 잔꾀로 무사안일함 속에 보이는 것은 스스로 무기력함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이제 자신감을 되찾아야 하는 시기
 가 도래하고 있소, 때는 바야흐로 새 봄을 기다리는 시점에
 서 우리들이 해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눈 앞에 있소, 새
 봄에 새싹이 피어오르듯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 생
 각되는구려. 다시 태어나야 할 민주노조, 찬란한 꽃봉오리를
 맺기 위해 뿌려져야 할 씨앗과 같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를 해 보구려...”

청주교도소에서 1994. 1. 11

◎ 동지를 생각하며

임종호 동지를 추모하며

당신이 살아생전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형제들과 동
 지들의 곁을 떠난 지금, 당신의 영전앞에는 당신을 기억하
 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과 당신
 을 잃은 슬픔으로, 머리숙여 애도를 표하며 조문을 하고 있
 습니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본가 정권의 더러
 운 음모에 단 한번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참다
 운 노동자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려 했던 동지의 삶을 생생
 히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동지의 사망소식은 믿을 수 없는
 하나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지의 시신을 확인한
 어머니가 당신의 빈소앞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울부짖
 고, 통곡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지를 지켜내지 못한 부
 끄러움으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지가 살아생전 그토록 미워했던, 동지의
 죽음을 불렀던 세일(현 통일중공업)자본가와 정권은 동지
 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공권력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동지의 죽음을 목격계 하며,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
 하는 자들에게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동지의 육
 신이 타고 남은 분골이 어느 낮은 시골마을의 개울가에 뿌
 려지는 모습만 바라보고 섰던 우리들의 비겁함과 나약함을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당신의 장례식조차 우리손으로 치뤄내지 못하고 당

신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묘하나 마련하지 못한 우리들의 못한 모습을 사죄합니다.

임종호 동지여!

언젠가 당신은 고향의 어머님에게 부모형제는 버려도 조합활동과 동지들은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며 어머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어머니를 노하게 하면서까지 투쟁의지를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신이 왜 살아서 우리들 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못살게 굴었던 자들에게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인 우리들이 싫어서 입니까? 아니면, 적들에게 저항할 힘이 없어서 입니까?

당신이 우리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아도 당신이 왜 죽음을 선택하였는지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척박한 땅에서 걸어왔던 고난의 가시밭 길을 당신이 떠난 이제서야 함께 가려합니다.

지켜봐 주소서! 당신의 죽음앞에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한마디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살아남은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임종호 동지여!

구천에서 떠돌지 말고 당신의 영혼을 우리들 가슴가슴마다에 깊이 깊이 새겨주고 부디 편히 잠드소서!
(전노협 마창노련 (주)세일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철우)

◎ 추모글

[글]

구속된 임종호 동지 교도소에서 의문의 죽음

-임종호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추석분위기에 젖어 있던 18일 오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보를 접하게 되어 슬픔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지난 92년 일.단협 투쟁 중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임종호 동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18일 오후가 되어서야 비보를 전해 들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이 반신반의하며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진주 의료원에 도착하여 보니, 임종호 동지의 죽음을 확인한 가족들의 슬픈 표정에서, 설마하던 우리들의 희망은 물

거품이 되고 임종호 동지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도소 측의 주장에 위하면 지난 18일 새벽 5시15분경에 임동지가 기거하고 있는 독방 벽에 박힌 콘크리트 못에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여 후송도중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하기 이틀전(16일, 금요일) 어머님과 조합간부들이 면회를 갔을 때, 임동지가 면회를 자주오지 않는다며 어머님께 투정을 부리고, 조기석방을 위해 조합에서 힘을 써주기를 부탁하며 변호사 접견을 요청하여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변호사를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터에, 유서 한장 없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특히 임종호 동지가 죽은 곳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교도소 안인테다가 교도소측의 주장만 받아들이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라는 점과 사회와 철저히 차단된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정확한 사인 규명은 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말보다는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고 앞장섰던 임종호 동지가, 이 사회의 권력을 유지하려던 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 구속되어 끝내 살아서 우리들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분노를 가슴에 안고 싸늘한 몸이 되어 우리들 곁으로 왔습니다.

임종호 동지의 죽음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유야 어쩔든 간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력으로 억누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 급급하는 바로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권이 임종호 동지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동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전 노동자들의 한을 가슴에 안고 있는 죽음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석 연휴로 인해 전 조합원 동지들이 임종호 동지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지들께서 동지의 죽음을 주위 동료들에게 알려주시어 임종호 동지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임 동지를 죽음으로 물고간 저들에게 분노를 가집시다.

결코 우리는 임종호 동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하는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양봉수 (당시 28세)

墓 부산 솔밭산 공원 묘역



- 1967년 4월 전남 무안 출생
- 1986년 2월 목포 덕인고 졸업
- 1990년 10월 현대 자동차 입사(의장 2부)
- 1991년 소위원활동, 저지급 동지회 2공장 대표
- 1992년 2월 성과분배투쟁 관련으로 해고
- 1993년 1월 원직 복직
- 1994년 의장2부 소위원회 부의장, 8대 대의원 당선
- 1995년 2월 의장2부 마르샤 투입관련 회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맞서 라인정지건으로 두번째 해고
- 1995년 5월 12일 공동소위원연합 2기 출범식 참석을 위해 정문 진입시 경비들의 폭력적인 저지에 항거하며 본관정문 앞에서 분신
- 1995년 6월 13일 대구 동산병원에서 31일간 사투끝에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양봉수 동지는 강직한 품성으로, 동료와 노동조합에 대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91년 말 노조의 성과분배 요구투쟁에 회사측은 노조없애기 작전으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그는 1차 부당해고되었다가 93년에 복직되었다. 복직 후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된 그는 작업강도 조정을 위해 같은 사업부 대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회사측은 신차를 생산현장에 투입하면서 작업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대의원과 협상이 계속되어 '신차 투입은 대의원들과 합의한 후 실시한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생산현장에 신차를 투입하였고, 양봉수 동지는 담당 대의원으로서는 회사측의 노사합의 파기에 강력히 항의하며, 신차를 투입한 생산 라인을 잠시 중단시켰다. 이를 이유로 그는 해고당하였고, 경남지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측은 법적인 소송에 계류중일 때는 조합원이 아니라 볼 수 없다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자격으로 노사협상장에 들어와 있는 그를 경비 20여명을 동원하여 정문 밖에 내던지는 폭력을 행사하고, 정문출입을 저지하였다. 95년 5월15일, 동지는 그날도 공동소위원회 연합 발대식에 참여하기 위해 동료 해고자 4명과 함께 회사 앞에 갔으나 출입을 저지당하였다. 법과 단체협약마저 무시하

고, 계속되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온몸에 신나를 붓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외치며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비들은 이를 무시하고 집단으로 저지하였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동지의 몸에 불이 붙게 되었다. 병상에서도 동지는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살고 싶다. 현장조합원을 사랑한다. 노동조합을 사랑한다. 동지들을 믿습니다...다시 돌아가 함께 하겠습니다."며 투쟁의 의지로 살고자 했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스물 아홉의 삶을 마감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양봉수 동지 연설문]

회사의 집요한 탄압을 뚫고 이 자리에 모이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부당징계자 양봉수, 승용2공장 조합원 여러분께 뜨거운 애정과 의리로써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투쟁"

며칠전 유인물을 통하여 김수중 공장장님으로부터 고맙게도 정당해고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쟁"

제가 정당해고자 맞습니까? 회사가 여지껏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면서 단 한번이라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던 조합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회사는 정당합니다. 언제나 회사는 잘못한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승용 2공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자란 놈이 아닙니다. 더 더욱 미친놈도 아닙니다.

백주대낮에 할 일이 없어서 잘 돌아가는 콘베어를 무단으로 세울만큼 간맹이가 부은 놈도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는 저를 미친 놈, 간맹이 부은 놈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것습니까?

그것은 승용 2공장 조합원들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바로 알고 그 부당함을 느끼고 벌쳐 일어서자, 혹시 이 일로 인해 전공장에 투쟁의 기운이 높아지고, 회사의 부당함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 사건을 왜곡, 은폐, 조작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징계자에게 회사가 이 정도의 심혈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번 징계는 부당하며 우리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승용 2공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써 "노동운동탄압분쇄, 노조민주화,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철야농성투쟁 21일째를 힘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합원 동지들께서 보여주신 단결과 투쟁이 21일째 철야농성을 당차고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찬바람 속에서도 근무하시다 짬을 내 "힘내라"며 농성장을 방문해 격려해 주시던 장기근속 조합원, 휴일인 일요일날 김밥을 싸갖고 오셔서 "잘 먹어야 투쟁을 하지"하면서 애정어린 눈빛을 떨구던 조합원, 반 별로 격려방문을 오셨던 각 부서 조합원 동지들, "아저씨, 힘내세요"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가너린 여성조합원, 그외에도 수많은 전공장 조합원 동지들의 격려, 이것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자리에 서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한 투쟁, 동지들의 일로 받아들인 투쟁, 이것이 이번 투쟁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동지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제 2심에서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가 가슴 아픈것은 해고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생산현장을 부당징계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회사가 조합원의 가슴 아픈 소리를 피땀 흘려서 외면하는 이영부 집행부의 반노동자적인 행위가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망하지도 가슴 아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투쟁에서 보여준 승용2공장 조합원 여러분들의 단결과 투쟁력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비록 외형적으로 제가 해고되어 이 투쟁에서 패배한것 같지만 내면적으론 이번 투쟁은 분명히 승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회사의 노동운동탄압과 부당한 노동통제에 맞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여일동안 우리는 회사의 부당함을 전공장에 알리며 힘차게 투쟁해 왔고

둘째, 조합원의 아픔을 외면하는 이영부 집행부의 비민주성을 폭로하고 규탄했으며

셋째, 제2의, 제3의 양봉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현장이 부당징계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부당징계 철회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왔습니다.

저는 이 세가지 근거로 이번 투쟁은 분명히 승리했다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당징계가 철회되지 못해 모두가 가슴 아프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지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슴 속 알알이 맺힌 노동자의 피끓는 분노를 조직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새로운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십시오.

승용 2공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 또다시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조합원이면서 대의원입니다. 회사는 저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론 법정투쟁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원직복직쟁취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대의원으로서는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일상투쟁에 맡은바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이 투쟁을 막을 순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늘 함께하는 한 저의 조합원활동을 막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부서로 다시 돌아가 그간 중단된 H-CAR M/H투쟁에 전심전력을 다 하고, 다가 온 임단협 투쟁의 선봉에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지들의 힘으로 복직되는 그날까지 노동자의 양심

과 의리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투쟁에서 보여준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조건속에서 노동자의 의리와 애정으로 함께 철야농성을 전개해온 승용2공장 대의원대표 김광식 동지 그리고 대의원, 소위원, 조합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동탄압 분쇄하고 부당징계 박살내자!"

"부당징계 박살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

<21일간의 철야농성을 마치면서 가진

사업부 집회에서의 연설문>

◎ 추모글

[시]

고인의 영전에 이 글을 바칩니다.

그대 이렇게 떠나는가

누가 무엇이 그대를 떠나게 했는지

그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알고 있음을

그대의 영전에서 부끄럽게 고백하네

그대 진정 나약한 우리를 위로하고 떠나야하는가

그대가 그렇게 들어오자 했던 양정동 700번지

민주광장

지금 그대 어찌하여 두발로 들어오지 않고

영정으로 왔단 말인가

우리가 애타게 원했던 것은 그대의 영정이 아님을

그대는 진정 몰랐단 말인가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그대의 쾌유를 빌었건만

그댄 우리의 바람을 외면할 수 밖에 없더란 말인가

아니니라, 아니니라, 그대가 아니니라

그댄 우리와 함께 하길 우리가 알고 있을 진대

그댄 정녕 아니니라

우린 알지요. 우린 알지요 누구인지들

그는 지금도 안락한 회전의자에 앉아

우릴 내다보고 있을 저들을

그대여!

나 말하리라 나의 아들, 딸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탄압에 고통과 피흘림과

죽임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자유를 누리다고

그리고 그대의 죽음도 잊지 않고 말하리라

그대여! 그대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대의 뜻은 제대로 빛을 발하지도 않았는데

그대 어떻게 가려나

그대여!

그대 이제 편히 가게나 이 세상 더럽고 추한 것 다 잊어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하나 그대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만 가져 가게나

그곳에서 왜 이리 일찍 왔느냐고 묻거던 이렇게 말하여 주게나

가난한 노동자의 가슴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가 흐르고

역센 팔뚝에 정의 넘쳤기 때문이라고

그대여! 그대 이렇게 떠난다해도

그대의 뜻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남을 것이며

그대의 뜻 이어나갈 것임을 낮은 목소리로

그대의 영전에 맹세하네

나 그대의 무덤에 다시 찾아가리라

역사가 온전히 심판하는 날

백합 한송이 장미 한송이 국화 한송이 품에

안고 가리라

그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역사가 심판했노라고

콘베어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이글은 양봉수 동지 분향소를 방문한

이름모를 조합원이 남긴 글>

박삼훈 (당시 40세)

墓 경북 영덕



1955년 경북 영덕군 출생
 1971년 영해 중학교 졸업
 1982년 대우조선 입사, 특수수 선장탑에서 근무
 1995년 6월 21일 분신후 투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대우조선은 그 동안 노동조합 집회 등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관리라인을 총동원하여 노조활동을 탄압해 왔었다. 동지는 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탄압에 온몸으로 항거, 분신후 투신하게 되었다.

박삼훈 동지가 근무하던 대우조선은 신경영 전략으로 현장의 노동통제를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감시, 감독하는 인간말살 정책을 펴왔으며 단체 교섭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회사측의 살벌한 노동통제와 노무관리아래 노동자들은 호봉 하나, 잔업특근 하나에 동료와 경쟁하고 눈치보며 서로 감시자가 되어야 했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참석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 당해야 했다.

회사측의 이러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6월 21일, 12시 20분경 박삼훈 동지는 특수선 본관 사무실 옥상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후 투신해 대우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12시 58분 끝내 숨지고 말았다.

◎ 동지를 생각하며

【애도사 (동지의 동생)】

언제나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도 목에 두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 가면서 즐겁게 작업하셨고 매서운 찬바람이 부

는 겨울 역시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출선수범하셨던 형님!

얼마전 저에게 막걸리 한잔을 전해주면서 항상 가정에 충실하라던 말씀 한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머물러있어 저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며 형님을 고이 보내 드립니다.

이제는 자본가가 생산제일만을 추구하는 것은 잊으시고 덩기만 하고 겨울철에 어디에도 몸녹일 곳조차 없는 회사,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영혼은 노동자의 곁에서 살아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참세상을 위한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길이길이 머무시어 인간해방, 노동해방이 존재하는 그곳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잠드소서.

◎ 유고글

【유서】

이놈에 세상 가진자만이 판치는 세상
 우리 근로자는 작은 월급으로 치솟는
 물가를 따라 가지도 못하고
 노동자여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인간답게 살려고 살아가는게 아닙니까
 특하면 집회 참석 못하게 하고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찾습니까
 노동자여 멍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올 임금 100% 쟁취하기 바랍니다.

사용자여 각성하라
 앞서간 노동동지 뒤를 따라갑니다.
 노동형제 여러분
 올해 목적을 기필코 승리하기 바랍니다.

【추모의 글】

열사없는 좋은 세상을...

“아침에 출근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금방이라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미망인 최정임씨. 살아 생전 그렇게 쾌활하고 탁트인 성격을 지녔던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한편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린 남편이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정을 봐두고 그렇게

떠나버린 남편의 심정이 어땠는지,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대우조선에서 같이 회사생활을 했기에 노동통제가 어떤건지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은 온 몸 불덩이 되어 그렇게 떠나갔다. 회사는 각성하라고.. 노동자되어 단결하라고..

그 큰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노동열사의 멋쟁이 아내로 살아야 한다는 어떤 책임이 버팀목이 되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

고현에 있는 한 아담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지금은 삼성중공업 외주업체에 나가고 있다. 큰아들은 대구에서 법학과 대학을 다니고 작은딸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착하고 굳건하게 커가는 모습이 가장 큰 위안이다. 또 하나의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는 전국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두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생채기 투성인 가슴을 안고, 고인들의 못다한 일들을 계속 펼치고 있다.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누구도 감히 손을 못 댈만큼 용이리진 이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 만약 저승에서 남편이 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조합원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어렵고 힘들수록 조합원끼리 서로 뭉쳐서 다시는 열사가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

〈박삼훈 동지 미망인 최정임씨〉

◎ 추모글

【시】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건 틀린거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
 내가 노동자요?
 내가 과연 사람이요?

먼저 이길 갔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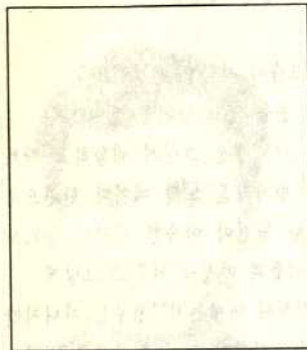
그 사람들이 이제 알 것 같소
 온 세상에 불 한 번 썩지르고 싶던
 그 더러운 기분
 내 한몸에 지르고
 나는 가요

이렇게 라도 해야

내가
 사람일 것 같소

〈제목 “내 장례식에 부쳐” 中에서.

시인 채유정 지음〉



1995년 9월 4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95년 9월 4일에는 철도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던 서전근 동지를 철도청에서 오지로 전출을 보내려 하였다. 서전은 동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조건인 철도노동자 민주화 운동에서 자신이 굴복하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 철도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동지들이 줄줄이 오지 전출을 받게 되어 수 십년에 걸친 어용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에 이를 결사적으로 막고자 한 것이다. 서전근 동지는 끝없이 길게 뻗어 있는 은빛 레일을 보았다. 어려운 조건에서 모든 억압을 온 몸으로 받아가며 일해야 하는 동료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대전철도공작장에서 분신하였다. 결국 서전근 동지는 철도 민주화를 위해 오지 전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1967년 강원도 태백 출생
- 1986년 대우정밀공업에 병역특례로 입사
- 1991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해고
- 1993년 마포 민주당사에서 38일간의 단식투쟁
- 1995년 12월 15일민주당 서울시 지부에서 목을 매 자결

◎ 동지의 삶과 죽음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조수원 동지는 민주당 서울시 지부에서 3년동안 군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을 전개하다 1995년 12월15일 목을 매 숨진 채로 젊은 생애를 마감했다. 그는 86년 대우 정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특례보충역으로 4년6개월 가량을 마쳤으나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해고를 당했다. 이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영장을 발부받은 뒤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입영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고 수배생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조수원 동지를 비롯한 병역특례 해고자 10명은 마포 민주당사에서 목숨을 건 38일간의 단식 농성을 했지만 병무청은 법논리를 내세워 노동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조수원 동지의 죽음은 현정부의 잘못된 병무행정과 병무청의 부당하고 비정한 병무행정이 빚어 낸 간접 살인에 다름아니다.

◎ 동지를 생각하며

12월 19일, 영안실에서
조수원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나신지도 이제 5일째...
동지의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이곳의 분위기는 이제 좀 더 냉철하고 차분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안실에는 약 100여명의 동지가 상근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7시30분 기상, 9시 약식집회, 12시 신한국당 항의방문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항의 방문을 갔던 동지들이 연행되어서 오늘은 남은 동지

들이 연행된 동지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는 4개의 경찰서로 면담신청 및 항의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면회를 가진 동지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전화로 상황보고를 받고 연행된 동지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상황실 분위기는 다소 밝아진 듯 합니다. 5일 동안 잠시 잠깐 새우잠을 자면서, 선전작업을 하고, 항의방문을 하고 있지만 영하의 날씨가 무색하게 우리 동지들은 건강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동지들이 계속해서 상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실에 책상이 들어와서 좀 더 정리된 분위기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엊그제 완성된 조수원 동지의 대형 영정이 영안실 동지들을 지켜주고 있는 듯 합니다.

◎ 유고글

[시]

푸른 하늘이여

구름을 가로헤쳐 창공으로 솟았습니다
하늘은 너무도 맑고 깨끗합니다.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진리
선한 사람들의 영혼이 모여
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멀리 거제에서 구로까지 솟구치는
노동자의 뜨거운 열기속에

여망을 모아 진실을 외치며
춤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본가와 권력과의 음모가 벽이 되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쪽발이 양키가 한반도를 파헤치고,
어두운 구름을 몰아
암흑으로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춤세상에 벽을 가르고
타락 속에서 쾌락을 얻는 자들이여!
죽창되어 너희의 양가슴에 꽃히고
사라져간 열사의 영원을 모아
너희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너희의 족적대를 복수의 칼을 내리칠 것이다.

푸른 하늘이여!
양심의 진리를 모으소서,
힘찬 노동자의 맥박과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소서,
하늘의 푸르름을 성광으로 발하여 선한
이들의 넉넉한 마음과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찬란히 비추어
희망으로 가득차게 해 주시시오.

춤세상을 향한 발걸음아!
벽을 부수자! 족쇄를 끊고
세상에 진리의 터전을 가꾸며
힘차게 새벽 공기를 가르자.
(89년 대우정밀 노보 해방터에 실린 글)

◎ 추모글

【추모시】

이렇게 가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 조·수·원

수원아
왜 죽어서도 무릎꿇고 구슬피 울고 있느냐
행여 부모 가슴에 대못 박고 먼저 간 불효자라
가슴 치지 말아라

부질없는 인생이라 마음 썩지 말아라
못 먹이고 못 가르쳐 텅빈 가슴 한 구석
끌고 바른 태백산 대나무같은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세월

홀로 젊어지고 온 천근만근 짐일랑 내려놓고
편히 누워라 아들이
이 애비 네 맘 다 안다 이 애비가
네 맘 다 안단 말이다
착한 내 아들이
수원아 오죽 앓았겠느냐 해 보고 싶었던 일
얼마나 야속했느냐 무심한 세월
냉동실 안에서 얼마나 추웠느냐 내 아들이
이제 다 잊어버리고 편히 누워라
텅빈 뒷골목 밥집 찾아 헤매던 날
한가위 보름달도 내가 몸져 누웠을 때 찾아왔다가

형사 눈초리 피해 뛰쳐 나오던 날
오동나무 칼바람도
차라리 감옥이라면 면회라도 갈 거 아니냐던
수화기 저편 네 애미 울먹임도
38일 단식이라니 몰래 먹는 거 아니냐던
비아냥 거림도
죽은 사람만 복직시키겠다고
끝모를 탐욕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편히 누워라 내 착한 아들이
보아라 수원아 그날 그 소나무 밑
너와 나 겨레 가슴 겨늘 총부리 만드는
병역특례병에서
조국의 내일 밝힐 노동자 되기로 다짐했던 곳
박창수 위원장이 목숨을 바쳤던 그해
91년! 철마산 투사들이여 전노협을 시수하라!
강고한 파업투쟁
동트는 새벽 백골단, 헬리콥터에 쫓겨 넘던
능선 위 그 소나무 죽어도 돌아오자던 그 맹세대로
글종의 4년을 뛰어넘고 천리길 돌고
돌아 다시 일어서
저 푸르른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왔지 않느냐 수원아

수원아
성당앞에서 두건 쓰고 쇠사슬 매고 살 예이는 밤
몇 년을 보낸다 해도 죽음 앞에서도
참회할 줄 모르는
더러운 자본가 쓸어버릴 수 있다면
착한 사람 누군가 맞이할 새 아침에
정작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 해도 솔밭산
밤나무로 태어나 재잘거리는 아이들

알밤 한 소쿠리 까줄 수 있다면 꿈도 청춘도
목숨까지도 태워
세상 밝히는 촛불이 된다 해도
천만개로 활활 타는 해방 불꽃 지펴
네가 못다이론 노동해방의 꿈 우리가 이루리라
꼭 이루리라 수원아



1961년 10월 8일 전북 김제 출생
 1984년 2월 경기 간호전문대 졸
 1984년 3월 한전부속병원 입사
 1989년 3월 전력노조 한일병원 지부위원장 피선
 1993년 3월 위원장 재선
 1996년 1월 13일 분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작지만 단아한 용모에 언제나 순박한 웃음을 띤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김시자 동지. 노동조합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일해나가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순리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갔던 김시자 동지.

그런 동지에게 최태일 어용노조 집행부는 1월7일 '규약위반'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사유를 내걸고 징계위원회 개최와 출석을 통보하였다.

1월12일 오후 2시경, 경주 보문단지내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전력노조 54차 중앙위원회는 첫번째 안건으로 김시자 동지와 오경호 동지(광주전력지부 위원장) 2인에 대한 징계를 결의할 예정이었다. 최태일 집행부의 짜여진 각본대로 징계가 이루어지기 직전, 김시자 동지는 변론을 통해 "징계는 부당하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이런 상태로 그냥 있으면 노조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을 남긴채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동지는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불덩어리가 되어 회의장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 유고글

【유서】

전력노조가 변해야만 한전과 한일병원이 변한다는 생각에서 분신을 결심하게 됐다. 그동안 많은 농성,

대회장 점거등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항상 그 결과는 최태일이 하고 싶은대로 했다. 같은 위원장이, 선출된 위원장인 나를 징계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도 동조하는 위원장들을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전력노조가 하루속히 변하기를 바란다. 양심대로 생활하는 조합원은 행동을 보여주지 바란다. 정리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 노조는 아무리 법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았다. 가족 특히 어머님한테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가족 모두에게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1996년 1월 12일

전국전력노동조합 한일병원지부 위원장 김시자
 <이상은 김시자 동지가 분신 후
 다른 동지에게 구술한 것입니다>

【최후 변론】

먼저 전력노조 사상 최초로 전국 지부위원장들의 회의체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징계한다는 불행스러운 자리가 마련되고, 여러분 앞에 서야하는 사실에 분한 마음보다는 차라리 커다란 슬픔을 느낍니다.

선거시기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장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부 위원장님께서 임명한 위원장도 아니고, 저는 여러 위원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일병원 500여 조합원들의 소중한 한표한표에 의하여 당당히 선출된 한일병원 조합원의 대표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해온 노조활동을 두

고 저를 선출한 우리병원 조합원들만이 저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병원지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여기 계신 지부 위원장님들로 부터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징계를 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권을 얻을 것이 있다고 우리가 떠나간 후에도 후배들에게 영원히 남을 전력노조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억되려 하십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조합원들에게 자리매김 되어야만 합니까? 그리고도 여러분은 조합원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전력노조가 나약하고 비굴하다는 인상을 언제까지나 외적으로 비춰주며 살아가야만 합니까?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전력노조가 여러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민주노조가 된다면 위원장 직함을 포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불행히도 여러 지부 위원장님들에 의하여 징계된다 하여도 그것은 조직 갈등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조직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선출직 위원장을 징계한다는 엄청난 권리남용도 문제겠지만 징계를 당한 사람은 또다시 법적,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차기 집행부가 탄생된다 하여도 그 출발에서부터 도덕적인, 조직적인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시작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결과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앙위원이신 지부위원장님들의 냉철하고 올바른 판단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1.12

전국전력노동조합 한일병원지부 위원장 김시자
 <동지의 중앙위원회 최후변론>

◎ 추모글

【공노대 성명서】

김시자 열사의 뜻 이어받아 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쟁취하자!

우리는 오늘 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 한일병원지부

위원장 김시자 열사의 분신소식과 시신을 접하며, "이런 상태로 그냥 있으면 노조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절규와 함께 온몸에 신나를 뿌려 자신의 몸을 태우는 것으로 노조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김시자 열사의 뜻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슴 조아리며 통곡한다. 또한 한없는 오열과 비통함으로 김시자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살인범 전력노조의 어용 최태일 집행부와 이를 사주한 한국전력공사, 재경원, 김영삼 정권을 이 사회의 양심에 고발한다.

지난 95년 9월 재경원은 공공부문의 노조전임자 축소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로 공사를 통해 전력노조의 최태일 집행부와 짜고 전력노조의 전임을 축소하였으며, 대신 최태일에게 노조민주화 세력에 대한 징계권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12월20일 재경원은 투자기관 전임자 축소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최태일 집행부는 바로 95년 1월12일 김시자 열사를 징계하기 위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바로 이날 김시자 열사가 대회장에서 노조민주화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김시자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범은 다른 어떤 노동조합을 팔아넘기며 온갖 협잡과 만행을 일삼아 온 개만도 못한 전력노조의 어용 최태일 집행부이며,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된 나머지 노조 전임자 축소방침을 내세워 어용과 협잡으로 노조말살을 사주한 공사와 김영삼 정권이 바로 공범자들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최태일과 같이 제 뱃속만 불리기위해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온갖 사기와 협잡극으로 가로채 먹는 어용노조가 아직도 이땅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울 따름이며, 공노대 소속 15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전력노조 최태일 집행부의 살인 만행을 반드시 단죄할 것임을 밝힌다.

공노대는 또한 공공부문 노조의 전임자를 축소하기 위해 전력공사의 최태일에게 노조민주화 세력에 대한 징계권을 주고 전임자 축소의 명분을 협잡으로 꾸며낸 공사, 재경원을 비롯한 현 정권에 김시자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을 묻는다.

바로 이를 전 대우 정밀의 병역특례 해고자 조수원 열사의 삼오제가 끝나 무덤의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여성 노동자이며 위원장인 김시자 열사가 분신했다.

우리는 묻고자 한다. 김영삼 정권은 노동자의 죽음을 얼마나 더 필요로 하는가?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죽음을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김시자 열사는 한국 전역 노조 조합원의 힘에 의한 노조민주화 쟁취를 통해 한국전역 민주노조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공노대는 한국전역의 노조민주화를 바라는 모든 조합원과 함께 한국전역노조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승리할 것이며, 김시자 열사를 죽음으로 물고간 살인자들과 공범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 김시자 열사의 뜻 이어받아 노조민주화 쟁취하자!
- 김시자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전역노조 최태일 집행부는 자폭하라!
- 공공부문 총단결로 전임자 축소 박살내자!
- 전임자 축소 살인만행 투쟁으로 단죄하자!
-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김영삼 정권은 물러나라!

1996년 1월 13일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유 구 영 (당시 39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57년 출생
- 1981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한국신학대학원 입학
- 1988년 영등포 기계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
- 1990년 대한 중전기 분회장
- 1993년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정책실장
- 1995년 민주노동정책 기획실 정책부국장
- 1996년 5월 2일 새벽 2시 25분경 동지들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암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고려대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투신한 유구영 동지는 영등포 기계공단 노조 사무국장을 거쳐 서노협 선봉대장 및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던 중 간암에 걸렸음을 알았다. 질환의 성격상 육체적인 무리는 치명적인 것이었음에도 각종 수련회나 교육 등으로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렇듯 병마와 싸워나가면서도 활동을 그치지 않고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95년 12월부터는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정책부국장으로 일하였다. 96년 5월 2일, 병세의 악화로 인해 여러번의 입원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동지들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벽 2시 25분경, 원숙한 40대의 생애를 시작하지도 못한채 운명하였다.

와 마지막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 천만 노동자의 자랑스러운 조직, 4천만 민중의 희망-민주노총을 건설하고 처음 맞는 노동절 투쟁이었는데, 정작 그토록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애썼던 동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기쁜 일 해드린 것 없는데 마지막까지 아버님 가슴에 한울 문은 것이 무거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도 이제 마음 풀고 편히 가십시오. 이제 민주노총이 자식이 되어 먼저 간 동지를 대신해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해방 그날까지 우리 노동자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십시오.

◎ 동지를 생각하며

유구영 동지!

동지의 얼굴이 떠오르면 "어서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할텐데"했던 동지의 말이 어김없이 송곳처럼 아프게 우리 귀를 찢어 오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민주노총 건설"이라고 했던 동지의 얼굴이 우리 가슴으로 안겨옵니다.

유구영 동지!

우리는 여덟시간 노동제 쟁취와 노동해방을 위해 피 어린 투쟁을 벌였던 선배 노동자들을 기리고, 민주노총 합법화 가능성과 근로조건 개악 시도의 이중적인 정세를 돌파하는 첫번째 투쟁-노동절 투쟁을 벌이면서, 동지가 병마

◎ 추모글

동지를 그리며

세칭 일류대의 전망좋은 인기학과를 졸업한 유구영 동지가 안락한 삶을 쫓았다면 그 장래는 장미빛 탄탄대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지는 이 탄탄대로를 '죽음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 대신에 동지는 고난에 찬 가시밭길을 택했다.

동지는 결단을 내렸고 대학을 졸업하던 이듬해인 82년, 노동자의 삶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동지는 노동자 계급의 일원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했다. 우리는 이를 험겨운 현장생활의 와중에서도 청주직업훈련원 전기과를 야간으로 이수한 사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죽음의 병마와 싸우기까지 동지는 오직 노동자의 총체적 해방을 향한 투쟁의 한 길을 걸어왔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교육간사, 영등포 기계공단노조 사무국장, 대한중전기 분회장을 거치는 동안 동지는 한번도 노동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늘 투쟁의 맨 앞자리에 서 있었다. 90년부터 2년여동안 맡았던 서노협 선봉대장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부천 세종병원에서 역시 노동조합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부인 신윤복씨는 몸을 돌보지 않고 이랜드투쟁에 매달리던 동지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유우영 동지는 특히 노조운동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인 섬유와 유통, 영세사업장의 조직화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 사무국장을 지낸 영등포 기계공단노조는 공단내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로 구성된 지역노조였다.

한편 서노협 전임을 비롯해 직업적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는 동안 동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세명의 가족을 거느린 동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가 전부였다. 그나마 민주노총이 출범한 뒤 부족하나마 비로소 지급되기 시작한 '첫월급'을 그는 병상에서 받았다.

간암 중기의 하늘이 무너지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 밤에도 동지는 민주노총의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이면서 동지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을 새벽 4시까지 정리했다.

유우영 동지가 꿈에도 염원하며 정열을 쏟아부었던 민주노총 건설이 실현되고, 자신의 맘이 뻗 그 조직이 이제 막 새롭게 활동을 펼치려던 참이었다. 향년 40세.

오영철 (당시 40세)



- 1956년 1월 27일 출생
- 1975년 성남고등학교 졸업
- 1984년 제1회 6급 공채 합격
- 1988년 5월 서울 개봉전화국 발령
- 1988년 어용노조 퇴진을 위한 "전민현"건설
- 1988년-91년 어용퇴진위원장 직선제 관철을 위해 전국적인 '노민추'활동 투쟁전기
- 1991년 '체신부 부당간섭 저지투쟁위원회'결성
- 1991년 11월 전남 여수무선전신국 강제발령
- 1995년 민주노조 활동으로 서울구치소 구속 수감
- 1996년 6월 18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운명



1963년 12월 28일 통영 비진도 출생

한산 중학교 졸업

김해 고등학교 졸업

경상대 사범대 과학교육과 졸업

삼천포 공업고등학교 재직

1996년 11월 10일 전국교사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전복사고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96년 11월 10일 박문곤 동지는 전국교사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대회장 안에는 40만의 교사와 천만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1997년 전교조 합법화 원년"이라는 글씨가 창공에서 나부끼고, 노동악법 철폐를 결의하는 힘찬 목소리가 가득했다. 이렇게 노동자대회를 잘 치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박문곤 동지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와 가족을 태운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차안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쏟아낸 피로 얼룩졌고, 밖에는 손목, 뼈토막, 몽개진 살이 널려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해 박문곤 동지와 류타원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운명하였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참교육이 꽃피는 합법화 시대를 끝내 보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는 다시 전태일을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그의 절절함은 지난 20여년간 우리 내딛는 발걸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26년전 전태일 선배에게 있어 '근로기준법'과 같은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무슨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포함하여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게 한 모든 이들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답하는 길이 될 것이기에...

이제 매년 11월이 되면 전태일과 함께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박문곤 선생님이 이루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류타원 어린이가 꿈꾸던 세상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새롭게 다짐하겠습니다. 그것이 두사람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기에.....

영원이 잊어서는 안될 이름. 박문곤, 류타원.... 그 이름을 가슴에 묻습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야 할 다른 선생님들의 아픔도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 힘 내세요. 저희가 선생님들의 나머지 한 팔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노동자가

◎ 추모글

【추모의 글】

박문곤 선생님! 삼천포 공고에 계시면서 보이지 않게 늘 참교육 실천에 앞장 서시던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뜻밖의 사고로 떠나보내야 하다니 이 슬픔 무슨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어린 시절에 아버님을 여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 오신 박 선생님. 그 때 그 어린 나이의 상수와 수진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일 모레가 수진이 돌인데 수진이 돌 사진 찍어달라고 동료선

생님께 부탁하시던 그 말씀 아직 귓가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5학년 타원이자 그리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학교, 이제 그 밑그림 위에 우리의 색깔을 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녕 이렇게 가실 수는 없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참교육 손수건을 대나무 깃대에 묶어 가을하늘 향해 흔들며 우리가 살아 갈 참세상을 꿈꾸어 보던 타원이를 차마 이렇게 보낼수는 없습니다.

오늘 가눌 수 없는 슬픔을 어루만지며 이 자리에 서 계신 유가족 여러분, 박문곤 선생님과 류타원양의 이 회생이 정녕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보여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바른 노동법 개정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교육이 바로 서고, 노동하는 사람이 진정 이세상의 주인이 되는 올바른 제도와 법을 만들어 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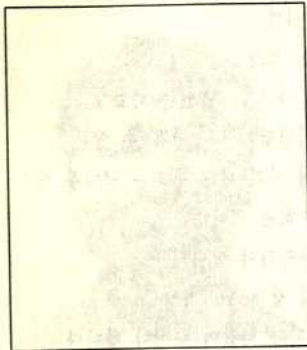
【시】

기나긴 투쟁의 이길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고 어떤 이는 그렇게 수없는 동지들을 우리 손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인 참변이란 말입니까. 투쟁의 이 마지막 고갯마루에 한 그루 나무로 달려와 숲을 이루어 주던 동지들 또 이렇게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꺼지지 않는 참교육 횡불에 단단한 장작이 되어 끝까지 타오르는 뜨거운 밑불이 되어 달려오던 동지들 또 이렇게 잃어야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동지를 노동해방 교육해방의 제단에 바쳐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살과 피를 더 이 길에 바쳐야 합니까.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 몇몇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를 더 피흘리고 쓰러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떨어져 나간 팔다리 곁에 우리가 팔이 되고 다리가 되어 서있어 주어야 합니다. 부러진 뼈가 찢겨져 흩어진 살 곁에 우리가 살이 되고 뼈가 되어 있어 주어야 합니다.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정직하게 땀흘려 노동하는 이들을 위한 세상 참교육 깃발 거리낌없이 이 하늘 아래 휘날리고 또 휘날릴 우리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 생명이 다 못 혼든 그 깃발 우리 가슴 터지도록 당당하게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간 동지가 못다 부른 노래 우리가 눈물과 기쁨으로 소리쳐 부를 수 있는 교육해방 노동해방 참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1939년 7월 8일 경남 밀양군 하남읍 백산리 출생
 밀양수산 동명중학교 졸업
 파월장병으로 지원하여 명호 26연대 복무

1973년 연희교통(현재 국민캡)입사
 1992년 노동조합 상임위원 재임
 1994년 노동조합 고문으로 선임 활동
 1997년 5월 31일 국민캡 휴게실에서 음독자결.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홍장길 동지는 밀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의 굴레를 벗고자 박정희 정권의 인력 수출정책인 파월장병으로 월남전에 참여하였다. 이후 그것만으로는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택시 노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택시 사업주들은 이윤창출을 위해 현대판 노예제도를 도입하여 무사고 10년에 개인택시 영업권이라는 제도의 울가미를 씌워 족쇄를 채웠고 국민캡 사장 허준도는 그것도 모자라 회사를 분할매각하고 기사를 택시의 부품처럼 끼워팔아 노동조합을 와해 시키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하지만 홍장길 동지는 분할매각 완전철회를 외치며 24년 8개월이라는 한많은 국민캡 노동자생활과 60년 인생을 택시 자본가에게 죽음으로서 저항한 것이다.

◎ 유고글

【유서】

민주노총 동지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캡 노동조합 위원장 내 시체를 집에 옮기지 말 것. 국민캡 마당에 빈소를 차릴 것. 그리고 부산시장 문정수, 허준도 불마니 우종수가 나를 짓밟고 나를 죽였다. 민주노총 그리고 국민캡 조합 동지 여러분 복수해 주기 바란다

1997. 5월 홍장길 올림

◎ 추모글

【가족의 글】

아버지!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자고로 의리가 있어야 한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언젠가는 널 알아줄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예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신 그 ”의리”의 대가라는게 이런건가요? 24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대가가 아버지의 죽음이란 말인가요?

24년 8개월이란 아버지의 시간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노동”이라는 그 이름으로 빼앗아 가고, 이젠 언제 그랬냐는 듯 ”분할매각”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의리의 대상인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 아버지!

아버지!

전 아버지를 아직도 차가운 영안실에 혼자 누워 계시게 만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말예요. 그리고 아버지 처럼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약하게 살진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곳에서도 여기가 보여요? 아버지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빼앗아간 그들과 우린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영전앞에 무릎 꿇고 사회할 그날까지 말예요.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싸늘해 졌어요. 그곳은 더하시겠죠?

언제부턴가 축쳐진 아버지의 그 어깨가, 그 뒷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처 못했던 말이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한 번도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그말

그 말을 이제는 더 늦어버리기 전에 말하려고 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가슴 저리도록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그 당당하시던 모습이 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이젠 웃으세요. 그리고....

편안히 잠드세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1997년 6월 4일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딸 경희 올림.

【유인물】

고 홍장길 동지가 우리곁을 떠나던 날

차량번호 1호, 근속연수 24년8개월, 국민캡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고 홍장길동지(60)는 노조가 분할매각 철회를 위한 전면투쟁에 들어갔던 바로 그날부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곳은 일을 마다않고 앞장서 싸워왔던 한 늙은 노동자였다.

분할매각 철회 전면투쟁 31일째를 맞았던 5월30일 저녁, 국민캡노조는 완전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양수사와 합의하는 안전을 토론했고 있었다. 조합원들이 대체로 합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갈 때, 홍장길동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합의에 결사반대하는 격변을 토하였다. 홍장길 동지의 의견은 분할매각 자체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5월31일 새벽1시 국민캡노조는 양수사와 완전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내용적인 타결을 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10시 노조는 조합원앞에서 이 타결내용을 보고하였고 11시 이춘근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러 부산시청으로 향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남상철 부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계속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

다. 11시반 문정수시장과 마주한 이춘근위원장은 11시50분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양수사는 이미 한 시간전 도장을 찍고 돌아간 상태였다. 11시50분 바로 그 시각, 부위원장장과 질의, 응답시간을 마치고 휴게실로 간 홍장길동지는 가슴속에 품어왔던 비닐봉지 속의 약물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조합원에 의해 발견돼 신속히 삼선병원으로 실려갔으나 홍장길 동지는 그만 이승중에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말았다.

휴게실에서 홍장길동지를 처음 발견한 조합원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질의응답시간을 마치고 갑자기 홍동지가 보이지 않아 급히 찾아 해마다 휴게실에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주무신다고 생각했는데 웬지 이상해 다가가서 몸을 만져보니 이미 뻣뻣한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막걸리병에 이상한 액체가 있어 코를 대보니 냄새가 너무 독해 잠시 얼굴도 대기 힘들 지경이었지요. 액체가 바닥 스킨로폴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자리가 스킨로폴이 타들어가서 폭 꺼져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미망인이 된 부인 윤옥순씨는 당일 아침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새벽에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오셨는데, 아침식사를 잘드셨어요. 지금까지 밖에서 싸울때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웬지 안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일찍 들어올테니 집에 계시라고 신신당부했드렸어요. 그랬는데 결국 나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말끝을 맺지 못하고 통곡을 터트리는 미망인. 잠시후 계속 말을 이으셨다. ”아침 일찍 차비가 있는지 주머니 지갑을 뒤져보니 4,000원이 들어있었어요. 차비하고 담배값 말고는 돈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 알아보니 새벽에 술을 먹고 나서 함께 투쟁하던 조합후배가 형 차비하라고 쉼러준 돈이었대요.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해서...”

홍장길 동지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았다. 그것은 언제나 분노의 눈물이었다. 투쟁을 하는 나날 밤늦게 동료들과 술을 한잔 마시면 흔히 가슴을 치고 분루를 흘리면서 이렇게 울분을 토하였다. ”내는 죽을거다. 내 이제 이 나이에 가면 어디로 갈끼고, 여기는 내 청춘을 다바친 직장이다. 내는 끝까지 여기서 싸우다 여기서 뼈를 묻을거다!”

결국 홍장길동지는 평소의 말씀대로 청춘을 다 바친 직장에 뼈까지 다 바치고 이렇게 우리곁을 떠나갔다.

... (faded text) ...

... (faded text) ...

... (faded text) ...

... (faded text) ...

... (faded text) ...

... (faded text) ...

... (faded text) ...

... (faded text) ...

길



... (faded text) ...

살아서 만나리라 학생편

● 동경에서 온 편지
... (faded text) ...

... (faded text) ...

... (faded text) ...

... (faded text) ...

... (faded text) ...

... (faded text) ...

김 상 진 (당시 26세)

墓 画 장



1949년 11월 25일 서울 출생
 1968년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과 입학
 1970년 군입대
 1973년 군제대
 1974년 2학기 복학
 1975년 4월 11일 서울 농대 교정에서 있었던 자유성토타회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할복자결, 서울 의대 이승도중 운명,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

◎ 동지의 삶과 죽음

75년 4월 학원자유화 문제와 동아일보의 언론자유 문제로 인해 학생총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4월2일에 이르러서는 박정희정권의 온갖 죄악이 농과대학 학생회 명의의 선언문에 날날이 고발되어 학내 분위기는 고양되었다. 그러다가 4월3일 3백여명의 시위대열이 가두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회장 황연수군과 축산과 4년 김명섭군이 연행되었다. 이에 분노한 축산과 학생들은 연행학생 석방을 위해 학장, 총장에게 공개장을 발송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4월10일자로 단식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4월10일이 되어 단식을 연기하고 자제할 것을 종용하여 이에 학생들은 하루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막상 11일이 닥쳐어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는 학교당국의 모습 속에 일단 과대표회의를 열어 월요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했으나 3백여 명의 학생들은 해산하지 않고 자유성토타회를 시작했다. 자유성토타회 3번째 연사로 등장한 김상진 동지는 '양심선언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양심선언문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끝부분의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다음 원문과는 달리 '나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완전한 이성을 되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갖다가 명실상부하게...'에 이르러 20cm가량의 과도를 품안에서 끄집어내어 할복을 하였다. 평소 동지가 가깝게 지냈던

학우 너댓명이 김동지를 택시에 태우기까지 "애국가를 불러달라"는 그의 요청에 따라 애국가를 불러주었고, 택시에 올랐을 때는 이미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수원도립병원에서 약 1시간동안 허복부 하강정맥을 잇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소생이 어려웠고 이튿날 아침 8시경 서울대 의대부속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구급차 속에서 운명했다.

◎ 동지를 생각하며

9남매중 6번째로 태어난 김상진 동지는 풍족하지는 않으나 양친 밑에서 따뜻한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했다. 어릴 때부터 비교적 내성적이고 침착한 성품이었고 양친의 풍요로운 사랑속에 성장한 덕택에 은유하고 원만한 친우관계를 유지해왔다. 군대 3년을 마친 복학생이었기에 연령적으로도, 김동지 자신의 포용력있는 성품으로도, 학내에서 정신적인 리더였다고 주위의 사람들은 평한다. 또한 성급하거나 과격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신중한 편이면서 논리정연한 사고능력과 뛰어난 문장력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유신독재로 온갖 폭압과 만행을 저지르던 박정희정권은 이 땅의 젊은이를 고뇌하게 만들었고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말았다.

◎ 유고글

양심선언문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어두움이 질게 덮힌 저 사회의 음울한 공기를 헤치고 죽음의 전령사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있단 말인가?

대학은 휴강의 노예가 되고, 교수들은 정부의 대변자가 되어가고, 어미닭을 잃은 병아리마냥 우리들의 반응없는 울부짖음만 토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그릇됨이 아닐진대,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양심이 아닐진대,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자존을 짓밟혀 불명예스런 삶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를 대변한 동지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위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오라! 동지여! 우리의 송고한 피를 흘려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주저하고 있는가! 들오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 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학우여!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금일 우리는 어제를 통탄하기 전에, 내일을 체념하기 전에, 치밀한 이성과 굳은 신념으로 이 처참한 일당독재의 아성을 향해 불퇴전의 결의로 진격하자. 민족사의 새날은 밝아오고 있다. 그 누가 이 날의 공포와 혼란에 노력질 당하길 바라겠는가. 우리 대한국은 민족과 역사 앞에 분연히 선언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회개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열한 피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역사는 이러한 사태를 원치 않으나 우리는 하나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을 것임을 재천명한다.

탄압과 기만의 검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라.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민주 사회를 향한 결단의 깃발을 내걸어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공포의 병영국가가 도래했음을 민족과 역사 앞에 고발코자 한다.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스런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저 지하에선 내 영혼에 눈이 뜨여 만족스런 웃음 속에 여러분의 진격을 지켜보리라. 그 위대한 승리가 도래하는 날! 나! 소리 없는 뜨거운 갈채를 만천하에 울리게 보낼 것이다.

1975. 4. 11

서울농대 측산과 4년 김상진

◎ 추모글

<시>

아아, 김상진

기인 겨울

얼음 뚫고 흐르는 맑은 한줄기

시냇물 소리여

그대 죽음이여

여윈 나무가지마다

눈보라에도 움트는 저 애잔한

푸르름이여

검은 충구에 꽃혀진

한떨기 붉은 철쭉꽃의 눈부심이여

그대 죽음이여

두려움에 얼어붙은 가슴들을 찢어

선혈로 들끓게 함이여

돌이 된 혀를 칼로 쳐

빈하늘 말쑥의 폭풍으로 가득히 채움이여

탄식마저 성난 파도되어

젓빛 거리로 거리로 휩쓸어오게 함이여

그대 죽음이여

꽃잎 적에 아리따이

흰 이슬 더불어 단 한 번 죽어

세세에 끝없이 피어나 저 푸른 대지의 꽃바다로

영생활 그대 죽음의

오묘한 뜻이여

죽어 비로소 삶이여

버림으로써 연음이여

결단함으로써 자유의 이름이여

땅에 더불어 하늘을 모심이여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인간과 더불어 삶이여

우리 모두 삶의 외줄기 저 새 하얀 외로운 길이여

불꽃이여

그대의 죽음이여

아아 김상진!

아아 김상진!

비겁이 지배하는 우리 가슴에

용기를 주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 마음에

슬기를 주었다

분열이 잦은 우리 전열에

단결을 주었다

좌절에 빠진 동지에게

희망을 주었다

암재가 판치는 이 나라에

자유의 종소리가 되었다

총칼이 번뜩이는 저 거리에

평화의 꽃다발이 되었다

아아, 김상진!

아아, 김상진!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웃들에게

충족된 생존으로!

절망에 질식당한 형제들에게

축복된 나날로!

모든 어둠 위에 빛으로!

온갖 부정 위에 심판대로!

일체의 마귀 위에 회초리로!

방황엔 나침반으로!

실의엔 광명으로!

폭정, 부패, 독선, 압박과 착취와 기만의

악마 현정권에게 폭풍으로!

이 어둡고 가난한 나라 곳곳에 이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들 가슴 가슴에, 손과 손에

파도로! 합성으로! 해방의 불기둥으로

부디부디

아아! 넘어 돌아오소서.

1975년 4월 24일 민주회복국민회의

정 법 영 (당시 18세)

慕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1960년 6월 충북 청원군 출생
진천 한천초등학교 졸업
청주 주성중학교 졸업

1977년 청주신학대 입학

1978년 3월 17일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신홍재분, 조광피혁 노동자들과 함께 목숨을 건 4개월 간의 단식투쟁

1978년 7월 8일 청주신학교 2학년 재학중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괴한들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함

◎ 동지의 삶과 죽음

정법영 동지는 1973년 청주지역에 도시산업선교가 시작될 무렵 중학생으로 사회선교와 현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78년 3월 청주지역에서 노동자들은 퇴직금문제로 장기적인 농성을 전개하게 되었고, 농민 소작인 중 한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못매를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노동자와 농민들은 단식 농성으로 맞서 투쟁하였고 정법영 동지도 같이 투쟁에 참여하면서 경찰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민중생존권 수호를 위한 쟁기 과정에서 113일이 경과되도록 문제 해결이 안되자 심리적 갈등을 겪던 정법영 동지는 정체불명의 친구들을 몇 번 따라다니며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78년 7월4일에도 정체불명의 친구들과 만난 후 청주 성가의원에 혼자 가서 약을 먹었다면서 치료를 해달라고 했다.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와서 가보니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이후 5일간을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7월 8일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인간의 삶의 질의 변화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경제적 구조악을 타파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신이나 5공을 능가하는 거짓 포장된 민주화시대에 살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실 분들이 이런 중요

한 때에 그런 왜곡된 주장을 감히 공개적으로 교회협의회를 통해서 내세움을 볼 때 솔직히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폭력이 지배하는 한 민중은 저항할 것이고, 교회도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며, 향후 그들의 주장도 경계와 더불어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 고 정법영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14년이 지나갑니다. 법영 동지는 분명 한알의 썩어가는 밀알이 되어 술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백배, 천배의 새로운 밀알로 태어나 이 땅을 지배하는 군사독재 집단과 이에 추종하는 그 어떤 거짓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도 현혹되지 않고 과감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야말로 고 정법영 동지가 우리에게 알려준 정신이고, 이는 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고 정법영 동지여 고이 잠드소서!

1992년 7월 8일

청주 도시산업선교회 평신도 청년일동 드림

◎ 동지를 생각하며

<대성여객 사장에게 보낸 동지의 편지>

사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시민의 한사람으로 귀 버스 회사의 차를 이용하는 시민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귀 버스 회사

가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사업에 힘쓰고 있음을 알고 있는 저는 의외의 사건에 대하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에 낸 귀버스의 박성세씨 사고(10월 16일자 충청일보)에 대해 시민으로서 납득할 만한 보상을 즉각 해주시기를 재 부탁드립니다. 기업가의 양심있는 판단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주시민의 한사람

<별 기>

1978년 5월 5일

오늘은 오랜만에 아버님을 만나 이야기했다. 존경하는 아버님이다. 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경한다. 진실로 이것은 나의 전부이다. 인간으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그는 불평없이 해나간다. 당신은 비록 가정에 풍요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 이는 돈 많은 사장보다 그 어느 지성인이라 자부하는 자와 아니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훌륭한 인격자요 지성인임을 지니고 있는 당신을 난 항상 존경합니다. 전 당신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마음의 갈등이 수없이 오곤 합니다. 한 인간의 목적인 삶의 영위 또한 그 가치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미숙한 전 울고만 싶습니다. 여하튼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 추모글

<시>

정 법영 영전에

어디에서나 낯선

이방인처럼

그대를 의롭게 병들게 한 것은

누구였는가?

쫓기는 긴장으로 불안으로

그대를 내어 물은 것은

누구의 범행이었는가?

가난한 이들, 억눌린 이들, 짓밟히고

슬픔에 잠긴 이들의 친구처럼 살고파하더니

외로운 이웃을 위한 고난을 사명처럼

외우며 살더니 황량한 "겨울공화국"의

한 벌판 위에서

스스로 생명의 잔을 산산조각 낸은

무슨 절규인가?

<윤용진(한신대 교수), '정법영 영전에' 中>

김 의 기 (당시 21세)

墓 파주 금촌공원



- 1959년 4월 20일 경북 영주군 영암리 출생
- 1976년 3월 서강대학교 경상대 무역학과 입학, KUSA가입
- 1978년 12월 서강대 등의 농촌활동 지도
- 1979년 8월 서강대 근대사 모임 주도
-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 목격
- 1980년 5월 30일 기독교 회관 6층에서 떨어져 투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80년 광주에서 우리나라 군대에 의해 우리 민족이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김의기 동지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던 광주의 참상을 직접 선봉에 서서 서울 시민에게 알리기를 결심하였다. 5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리던 정기 금요기도회를 시위 날로 잡았으나 대중적으로 결행되지 못하고 혼자서 추진 하던 중 6층의 폭 1m베란다를 건너서 창문밖으로 떨어져 사망, 계엄군에 의해 시신이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투신 당시의 상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포들에게 드리는 글"의 내용을 본다면 시위를 계획할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동지를 생각하며

5.18이후 계엄군의 무차별 대량학살이 시작되자 광주민중은 그 위대한 투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정규군과 같은 훈련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력은 점차 체계적인 투쟁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투쟁의 질적 비약은 동시에 의식의 비약적 발전을 수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쟁의 목표도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발전해 갔다. 계엄군의 학살이 잔인해 질수록 광주의 민중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장을 강화하게 된다. 시민군은 계엄군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해 나갔다.

김의기 동지가 누구도 광주항쟁의 실상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분연히 앞장 섰던 것은 김의기 동지의 책임감이 남달리 투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입으로 해서 될 말이 아니라 바른 길을 행해 몸으로 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라는 동지의 주장은 아무리 올바른 사상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공리공론일 뿐이니, 실천을 통하여 올바른 사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동지의 평소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김의기 동지는 이 원칙을 구현하다가 군사독재에게 죽임을 당했다.

한 사람의 운동가로서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인 명예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운동에 책임을 갖고 자기가 세운 운동의 원칙을 끊임없이 실천하다 가신 김의기 동지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 유고글

〈일 기〉

78년 4월 11일

운동이, 혁명이 그 자체가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는 것 따로, 운동 따로는 영성해질 도리밖에 없다.

통채로 내 생활이 되어야 한다.

생활이 삶이 절대 거짓으로 울 수 없듯이, 운동도 절대 거짓스러울 수, 형식적일 수, 껌대기일 수 없다.

운동 그 자체가 삶이라면

은 힘을 바쳐서 열심히 살고
내 삶이 곧 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은 힘을 바쳐서 열심히.

〈동지의 글〉

감과 마음씨와 숨씨의 조화. 내 삶을 이끌어 나갈 강력한 힘을 난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조금의 선입관이나 자기 변명 이전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긍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미래는 현재의 바탕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야 하며, 그런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와 있는 곳과는 얼마나 많은 거리가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난 거기로 갈 수 있는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내가 최선을 바칠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난 왜 거기로 가려고 하는가? 거기에 가려면 난 지금 뭘해야 하는가?

〈김의기 동지의 글 중에서〉

〈일 기〉

79년 4월 5일

답답함 느끼는 것은 내 분에 넘치는 호사이다.

지금은 답답함 느끼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할 일을 해나가야 할 때이다. 느끼는 것을 할 만큼 난 한가할 수가 없다.

답답한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모조리 다 운수 사나운 탓이라고 돌리는 사람이 이땅에 한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피로함 느끼는 일이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피곤함 느끼기엔 난 아직 너무 젊다.

굽히지 않고 이 세상 끝장볼 때까지 살아 봐야겠다. 아무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힘 흐트리지 않고 내가 산 만큼 내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살이는 그렇게 한심한 것만은 결코 아니다.

내가 한심하게 살지 아니하는 한 절대로 한심할 리가 없다.

이 세상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내가 할 일은 세상에 맞지 않게 날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내게 맞게 맞추는 일이다.

〈동지의 글〉

동포에게 드리는 글

피를 부르는 미친 군화발 소리가 고요히 잠들려는 우리의 안방에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팍과 머리를 짓이겨 놓으려 하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러 우리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우리를 번득이는 총칼의 위협 아래 끌려다니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참한 살육으로 수많은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뜨거운 피를 뜨거운 오월의 하늘 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봉기가 유신잔당들의 악랄한 언론 탄압으로 왜곡과 거짓과 악의에 찬 허위 선전으로 분쇄되고 있는 것을 보는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여년 동안 살벌한 총검 아래 갇은 압제와 만행을 자행하던 박정희 유신정권은 그 수괴가 피를 뿌리고 쓰러졌으나, 그 잔당들에 의해 더욱 가혹한 탄압과 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년 동안 허위적 통계숫자와 사이비 경제이론으로 민중의 생활을 도탄에 몰아넣은 결과를 우리는 지금 일부 돈 가진 자들을 제외한 온 민중이 받는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것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유신잔당들은 이제 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개처럼, 노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높푸른 하늘을 우러르며 자유시민으로서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며 환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 것인가, 또 다시 처욕의 역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조상이 될 것인가.

동포여 일어나자! 마지막 한사람까지 일어나자! 우리의 힘 모은 싸움은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다.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기고야 만다. 동포여, 일어나 유신 잔당의 마지막 숨통에 결정적 철퇴를 가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동포여!

내일 정오, 서울역 광장에 모여 오늘의 성전에 몸바쳐 싸우자, 동포여!

1980년 5월 30일 김의기

김태훈 (당시 22세)

墓 경기광주 천주교 공동묘지



1959년 4월 13일 광주에서 출생
 1977년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1978년 서울대 사회계열 입학
 1979년 서울대 경제학과 진입
 1981년 5월 27일 경제학과 4학년 재학 중 도서관에서 투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김태훈 동지는 어려서 영세를 받았고 (세례명은 '다두') 강한 희생정신의 소유자였다. 한때는 가톨릭 신부가 되고자 했고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어릴때부터 보여 왔다고 동지의 부모님은 말씀하신다.

대학에 입학한 후 EHSA라는 씨클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했으며 동지의 얼굴 모습에서 보여주듯이 편안하고 푸근한 사람이었다.

고향 광주에서 대학살 만행이 자행되고 이에 대한 학내시위가 잦아지자 평소 말이 없던 동지는 더욱 말이 적어졌다. 동지가 투신하던 그날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도서관에서 원서를 번역하고 있던 동지는 창너머로 침묵시위를 벌이는 학우들이 무수한 경찰과 사복형사들에게 구타당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도서관과 아크로폴리스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던 그 때 도서관 6층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세번의 구호소리와 함께 동지는 자신의 몸을 던졌다. 학원이 온통 중무장한 사복경찰로 채워지고 폭력과 체포, 위협의 눈초리에 숨조차 막히던 그 때, 분노, 두려움, 부끄러움이 뒤섞인 체 싸움이 사그러져 갈 때, 동지는 핸드마이크도, 유인물도 가지지 않은 빈 몸으로 몸을 던져 우리를 일깨운 것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선혈을 내 쏟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널부러진 아직도 살아있는 동지의 몸위로, 헤아릴 수도 없는 최루탄이 쏟아져 내렸다. 수천의 광주민중을 학살한 그들에게 한갓 한사람의 생명쯤이야. "사람 죽었다" "비겁한 놈들아 나와 싸우자" 비명소리, 절규, 분노, 최루탄 연기, 폭음, 81년 5월 27일 오후 3시경 많은 학우들의 피눈물속에 또 한 생명이 민주제 제단에 바쳐졌다. 이제 그 누가 다시 제단에 바쳐질지 아무도 몰랐다. 그 누구도 자신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80년 이후 암흑기였다.

동지가 투신한 후 사후 수습을 위해 누나집에 모였던 20여명의 서울대생들은 불법연행되어 이틀동안 영등포서에 감금되었다. 천주교에서 자살을 죄악시함에도 불구하고 동지가 다녔던 여의도 성당의 신부님은 경기도 광주 천주교 공동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도록 시신을 거두어 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기관에서는 화장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차를 세 번씩이나 바꾸어 타게 하면서 장례를 방해하여 가족을 피로 통곡하게 하고 분노에 치를 떨게 만들었다. 지하에서라도 어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던 말인가?

동지의 죽음은 80년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이후 광주항쟁 계승투쟁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태훈 동지의 투신 이후 도서관 창문에는 검은 쇠창살이 박히고 아크로폴리스(민주광장)은 집회를 막기 위해 가시 돋힌 장미꽃밭으로 변했다.(이후 뿔혀짐)

최종철 (당시 23세)

墓



1958년 2월 8일 충북 청주 출생
 1977년 2월 청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3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 입학
 1979년 10월 부마 항쟁 참여
 1980년 6월 5.17 조치후 구속, 3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1981년 5월 11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교도소 생활의 후유증으로 고생
 1981년 9월 1일 오전 11시 30분 심장마비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최종철 동지는 청주에서 나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부산대학교로 진학하여 곧바로 학생운동에 헌신하였다. 학교시절 유신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여차하면 긴급조치로 잡혀 들어가야 하는 그 암담한 시절에도 학교에 각종 씨클을 조직하고 즐기차게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3학년 때인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을 결정적으로 분쇄하는 역할을 했던 부마항쟁에 앞장섰다가 수배를 받게 되었다. 그후 수배의 몸으로 청주로 돌아와 학교와 청주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바빠 뛰며 동지들을 규합하였고, 80년 민주화의 봄이 도래하는 듯 싶을 때에도 지칠 줄 모르고 정열적으로 활동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러했던 동지는 80년 5월 쿠데타로 등장한 신군부 세력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구속되어 군사재판에서 3년형을 언도받았다. 대전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수감중에도 가열찬 투사의 모습을 잃지 않았고, 1981년 5월11일 출감하였으나 수배생활과 고문, 징역생활에서 얻은 병마(신경통)와 싸우다가 출감 4개월도 채 안된 9월1일, 동지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 유고글

<편 지>

To. 동만

오늘은 월요일... 태양이 떠오른 후니까 아침인가 보다. 이곳에서는 가장 생기에 넘치고 즐거운 날이기에 웅성거리는 주변의 분위기에 위축된 인간의 마음에 삶의 원기를 불어준다고나 할까. 뜻밖에 여름이 다 지난 가을의 어느날 밤에 보는 천우의 서신은 무한한 기쁨이었다네.

이상적으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이곳에서도 삶의 리듬감을 찾으려는 노력과 의욕은 항상 꿈틀대고 있다고나 할까.

늘 건강하고 하루하루 진리를 깨는 노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나의 진실도 친구도 어떻게 받아드릴지!.....

친구여!

자네를 통하여 들은 밀알의 소식...(나에게 잠시 지난 추억을 되살려주는 것이지만) 정말 반가웠네. 밀알의 모든 친구들에게 이 친구의 건강과 굳은 믿음과 소망된 삶을 전해주거나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청주 제일교회당.....

나의 믿음을 키워주던 그곳의 기억은 일요일 교회

중소리로부터 살아 나와 우리 밀알 친구들의 영상과 함께 즐거운 휴식의 시간을 내게 준다네.

인숙양의 불행한 교통사고... 주님의 은총으로 하루 빨리 완치되길 빌겠네.

자네 그간의 생활은 어떠한가.

군센 의지로 살아가는 자네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할 내 입장아닌가.

3년이라는 세월의 장벽이 비록 우리 사이에 놓여있 다 할지라도 자네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찌 세월의 길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청주 제일교회의 모든 분들과 우리 밀알의 발전을 항상 빌겠네. 늘 친구들이 발전되는 삶의 소식을 접하길 원하며 군센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 어렵고 험한 세상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절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네.

청주 제일교회 청년회장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이눔의 안부와 아울러 건강과 발전을 기원한다는 말 전해 주고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여기서 붓을 접어야 하는 아쉬움 친구들의 회신으로서 풀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안녕.

1980. 9. 8. 친구가



학우 정성희 묘사

1980. 9. 8. 친구가
청주 제일교회 청년회장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이눔의 안부와 아울러 건강과 발전을 기원한다는 말 전해 주고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여기서 붓을 접어야 하는 아쉬움 친구들의 회신으로서 풀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안녕.

정 성 희 (당시 20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1962년 1월	출생
1981년	연세대 영독불계열 입학
1981년 11월 25일	시위관련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1982년 11월 28일	강제징집됨
1982년 1월 4일	자대배치, 이후 학원소요 관련자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옴
1982년 7월 23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및 의문점

〈사건일지〉

강제징집 사망자 1호

사망장소: 강원도 철원군 소재 제〇〇사단의 소속 대 26번 철책초소.

사고일지: 서기 1982년 7월 23일 0시 10분경.

사고내용: 철책 초소 보조경계근무중 총기자살로 통보.

사고소식 입수시각: 1982년 7월 23일 오전 6시경 (연천읍 소재 모식당에서 모 군인이 전화로 통보)

사망통지서 입수 일자: 1982년 8월 초순경.

사고종교 접수후 현지도착상황:

1982년 7월 23일 오후 5시경 연천 모식당에 도착하여 사망 통보한 군인을 접견한 후 병참모부에 다시 가 보니 "근조고 정성희"의 현수막과 빈소를 목격하였음.

• 군당국의 설명: 사고 현장은 최전방 민간인 통제 구역인 이유로 현지 답사는 불가능하므로 간단한 도면 설명으로 "자살"임을 믿어 달라고 간청하고 군인의 사체는 군부속품으로 병참모부에 안치되었다고 하였음. 군은 부모로부터 부검포기서와 화장동의서, 사망사인에 이의없고 이후 법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는 각서 등을 수사관이 받고 사체처리함.

사고총기의 개머리판 하단을 초소지면에 대고 상체와 팔, 다리는 약간 굽힌 채로 총구를 목 부분에 밀착시킨 후 자물쇠를 자동으로 위치하고 격발하므로서 연

발로 4발이 발사되어 자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호흡 정지 및 심장정지(사입구-목부분 가로 5센티, 사출구-정두부 및 후두부 2개소)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임.

• 사고경위 청취내용: 군당국의 주장으로는 철책 초소 근무중 7월 23일 0시 10분경 총기자살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음.

유서는 없고 몇줄의 낙서 쪽지뿐임(또 백양로를 걸어보고 싶다. 죽음앞에서 내가 이렇게 담담하다니. 윤희(동생)야 네가 배운 지식을 가난하고 병들고 눌린자들을 위하여 활용해라)

• 사고당시 목격자의 증언청취 내용: 사망당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제 2학년 학생인 임동구군이 전방훈련으로 나와서 죽은 정성희군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죽은 정군이 임동구군을 보고 말하기를 "형씨는 참 좋겠네요. 이제 전방교육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면은 학교도 다니고,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학교에서 데모를 하다가 강제로 군대에 끌려와서 전방근무를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낙인이 찍혀서 취직도 잘 안될테고 하니 참 희망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함께 초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망 당시에 총소리가 나서 옆에 가보니 총으로 자살하여 죽었다고 말하였음.

• 입대하게 된 동기: 일차 문무대 훈련당시 시위선동. 노래 선창으로 문교부 리스트에 기록됨.

• 사망후 부대의 조치: 연천 병참모부로 도착하여

첫번째로 보인 것이 "근조 고 정성회"라고 쓴 현수막과 빈소였다. 군 당국의 담당자는 사망당시를 도면으로 설명하고 총기 자살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목격자(당시 조선대생)를 면담시켜 주겠다고 한 후 여러시간 후 "최전방에서 방금 도착되었다" 하며 동행하였는데 목격한 임군은 총소리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함구 하였음.

그후 사체확인을 요구하여 빈소에 있는 관을 보여줌. 검은색 관 뚜껑 위에 태극기를 접어 얹어 놓았고 뚜껑을 열어 보니 작은 관에 키가 큰 사체의 고개를 꺾어 입관 하였는데 얼굴은 부었으나 깨끗하였고 코는 숨으로 막고 목 부분에는 검은 색 천을 덮어 놓았으며 군인 작업복을 입히고 비닐로 싸서 비닐칸으로 묶어 있었다. 관 전면에는 확대한 고 정성회동지의 사진까지 세워 놓았다. 유가족의 자살 동의서 날인후 간단한 영결예배를 마치고 고양군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인 천으로 돌아왔다.(고 정일병의 외삼촌, 고모부 동행)

◎ 성장과정

은행에 재직중인 아버지와 교편 생활하는 어머니 사이에 1남 2녀중 외아들로 태어나 주안지역에서 거주. 국민학교 때는 전교 어린이 회장에 뽑힐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고등학교 때 부터는 남달리 독서를 많이하여 문학적 소양이 풍부하였고 비교적 과묵하고 조숙한 편이었다.

동지의 일기에서 보면 고등학생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뛰어난 감수성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 학교생활

고3 시절 대학입시 준비에 바빴던 시간에도 틈틈히 많은 문학작품과 철학책들을 읽고 문학, 철학, 사랑, 장래의 이상, 종교, 신앙, 진리, 영화, 팝송, 고전음악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인식을 정리하여 시와 단상의 형식으로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신문, 월간지 등을 읽으며 시국, 민주화, 언론 등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동지의 일기중에서

그 나라의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은폐할 때 그 나라 국민은 무지에서 비롯된 소극적이며 이기적이고 또한 근시안적인 무기력한 국민이 되어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과거 우리나라의 언론이 그 책임을 완수치 못했기에 현 시국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1980년 5월 8일

이 윤 성 (당시 19세)



1964년 1월 3일	출생
1981년	경기고 졸업 성균관대 역사철학계열 입학
1982년	인문과학 연구회 회장직을 맡음
1982년 11월 3일	가두시위에서 연행되어 11월 7일 강제징집됨
1983년 4월 30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제대 8일전에 목매달다니...?
1982년 2학년때 인문과학연구부 회장직을 맡아 활동중 같은 해 11월 3일 가두시위에서 연행되어 11월 7일 강제징집. 그 후 군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음.

◎ 의문점

이윤성 동지는 예식장을 경영하시는 양친 슬하에서 5녀 1남중 3대 독자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 초등학교 때는 학급에서 반장을 맡는 등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명량한 성격을 지녔으나,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느껴 웅변반에 들었고 서울역 광장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모인 가운데 웅변연습을 할 정도로 활달하고 개방적이었으며 의지가 강하였다.

1981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역사철학계열에 입학한 뒤에는 진리탐구에 남다른 열정을 품었고, 자신의 주변 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전반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창생활에 임했다고 한다.

2학년때 인문과학연구회라는 씨름의 회장직을 맡았고 평소 유복한 가정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이동지는 82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가두시위때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인문과학연구회 회장이라는 것이 밝혀져 11월 7일

새벽에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고령(60세가 넘음)이신데다가 3대독자이고 시력이 나빠 보통의 경우에는 현역입대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83년 1월 10일경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면회갔을 때 이동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여기서 짬밥을 제일 잘 먹고 있으니 걱정말라. 후배들에게 열심히 살아달라고 해라"고 하는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제대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던 5월말경 이윤성 동지의 부모님은 군당국으로부터 이동지가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동지가 북한에서 날려보낸 뼈라의 일종인 안전보장증을 가지고 있었던 일로 죽음 직전까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군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끝난 후 자대로 돌아가 목을 매어 죽었다고 통보했다.

김 두 황 (당시 23세)

墓 化 장



- 1960년 6월 23일 서울에서 출생
- 1980년 고려대학교 정경계열에 입학
- 1982년 3월말까지 학회활동을 주도
- 1983년 경제학회 학회장
- 1983년 6월 8일 학생운동 관련 성복서에 연행되어 3월 18일 강제징집됨
- 1983년 6월 18일 보안사의 '녹화사업' 도중 6월 18일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및 의문점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

김두황 동지는 유복한 집안의 3남 3녀중 3남으로 태어나 1980년 고대 정경계열에 입학하여, 항상 명랑하고 매사에 성실하여 주위의 사랑을 받았다. 학내활동은 자신감을 가지고 처리 하였으며, 뛰어난 유머와 기지로써, 또한 세심한 배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우 관계도 좋았다. 특히 3학년 때 경제학과 학회를 담당하면서 심포지움 및 강연회 등을 준비하고 학내활동의 활성화, 민주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3학년 말, 82년도 학내활동을 반성, 평가하고 83년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문과대, 정경대, 사범대, 경영대 등의 당시 뜻을 같이 하던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83년도 축제 및 학도호국단 선거, 4.19행사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 방향성과 대안 등을 계획하던 중, 83년 3월 8일 성북경찰서에 연행되었다. "다른 학생의 일로 조사할 게 있으니, 곧 풀어 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7일 동안 고초를 당하고 3월 15일 저녁에 석방되었다가, 16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시간 호텔에서 18일 아침까지 동료와 함께 3명의 형사들과 동숙하였다.(부모님들은 다른 방에 계셨다.) 18일 아침에 병무청 직원 1명이 와서 간단히 서류를 작성하고 강제징집되어 보충대에 입대했다.

성북 경찰서에서의 그의 모습은 멧멧했으며, 그곳에서조차도 유머를 잃지않고 같이 조사를 받던 동료들

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양창욱(사회학 80)군도 함께 강제징집을 당하여-자진휴학이라는 형식으로-당시 강원도에서 근무중이었다.

김동지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왜냐하면 1983년 3월 18일 입대하여 6월 18일 운명일까지 약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출 한 번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가족들이 알고 있는 바는 훈련속에서 훈련성적이 우수 하였으며 사단장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소 그의 낙관적인 성격과 "어느 곳에 가든지 성실한 생활을 해야한다"는 그의 평소 신념의 소산이 아닌가 한다.

한편 같은 경우로 강제징집을 당한 모군의 경우를 보면 입대 후 군수사 기관에서 10여일간의 조사를 받고 학내활동의 조직상황 및 각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또 "특별휴가"라는 명목으로, 같이 학내활동을 했던 과나 씨클의 친구, 학회의 후배 등의 동정을 조사 보고 할 것을 강요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누설치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서울에 주둔하는 학교 담당 요원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며, 위촉되고 고쳐어 가득찬 표정으로 말하기도 했다. 입대 후에 계속 반성문과 기타 시대관, 조국관 등 유사한 보고서를 써야만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군수사 요원을 만나는 것이 크나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강제징집을 당한 경

우 거의 예외없이 강요되는 이런 사정을 볼 때 특히 김동지의 경우, 고대 학생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 한다면 군수사기관의 김동지에 대한 처우가 어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김동지의 운명일시는 6월 18일 오후 11시 30분이라고 한다. 6월 19일 새벽에 동지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으며 사고현장에 가족(형님 2분, 매형2분)이 도착한 것은 오후 3시라고 한다. 당시의 현장 정황에 대해서는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군에서는 "김동지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은 후 저녁에는 밥과 누룽지 빵 등을 먹고 동료 2명과 함께 경계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로 갔다. 근무중 동료에게 '소변보러 간다'고 한 후 나가서 잠시 있다가 총성과 함께 자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군수사대는 김두황 동지의 가족에게 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화장동의서를 받아낸 뒤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김동지의 유품으로는 볼펜과 사진 한 장(군에서 찍은 것), 시가 적힌 종이 주머니에 있었다 한다.

그런데 김동지가 운명하기 10-15일 전에 집에 보낸 편지에서 "시계를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가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것 같지 않다. 또한 사고 1주일 쯤 전에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이는 그의 신념을 볼 때 '자살'이란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낙관적인 사고를 기본적으로 갖춘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가 자살이라는 현실 도피를 생각했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군에서 밝히고 있는 자살동기는 특수학적 변동자로 강제 입대하여 전방에서 비행근무시에 매일 6-7시간, 에이형근무시는 20:00-익일 05:30 경까지 근무를 하는데 대한 불만과 자신은 항상 감시를 받고 있으며 내성적 성격으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소외감 내지는 열등감으로 인한 복부염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군에서 유서라고 주장한 '끝'이라는 시와 필적감정시 사용된 유서 '끝'과 내용이 상이하고 군에서 제시한 평은 필적과 유서와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